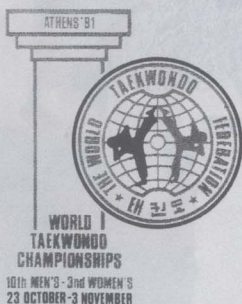


특집

제10회 남자-제3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10연패, 여자 3연패 달성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벌어진 제10회 남자 및 제3회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남자부가 금5, 동2개를 따내며 덴마크(금2·은1), 스페인(금1, 동2)의 추격을 가볍게 물리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여자부는 최근들어 국제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빼앗긴바 있어 이번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회생의 분기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하고 출전했는데 금3·동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번대회에서 남자부 라이트급에 출전한 양대승선수(조선맥주)는 8·9회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우승, 대회3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플라이급의 김철호(현대자동차)와 페더급의 장혁(한국체대)은 각각 세계대회 2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편집자주)

한국대표 선수단 명단

▲단장

이건수(전북태권도협회 회장)

(남자부)

▲감독

김대연(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위원장)

▲코치

윤창옥(한성고 교사)

▲트레이너

김영국(경남체고 코치)

▲선수

핀급: 강철우(국군체육부대)

플라이급: 김철호(현대자동차)

밴텀급: 선상준(청주대)

페더급: 장 혁(한국체대)

라이트급: 양대승(조선맥주)

웰터급: 박용웅(국군체육부대)

미들급: 윤순철(국군체육부대)

헤비급: 김봉근(경희대)

(여자부)

▲감독

이근우(부산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코치

이홍규(부산남여자상고 교사)

▲트레이너

양기모(인천체고 교사)

▲선수

핀급: 김진성(송곡고)

플라이급: 이화진(경희대)

밴텀급: 박동선(성신여대)

페더급: 박진경(상명여대)

라이트급: 정은옥(상명여대)

웰터급: 조향미(인천체고)

미들급: 양인덕(상명여대)

헤비급: 백영미(경희대)

남자부, 헤비급을 제외한 전체급에서 메달획득

한국대표선수단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5, 동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외국선수들의 꾸준한 기량향상과 좋은 체격으로 중주국을 위협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세계를 제패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태릉선수촌에서의 합숙훈련 등으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키고 체중조정 등에 만전을 기해온 결과라고 본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양대승선수와 2연패에 도전하는 김철호선수, 장혁선수등 막강한 실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 것도 선수들의 사기를 고양시켰다고 본다.



금5, 동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남자대표선수단

남자부단체성적

순위	국명	메달
1	한국	금5, 동2
2	덴마크	금2, 은1
3	스페인	금1, 동2
4	이집트	은1, 동2
5	미국	은1, 동1

10월28일 대회 첫날 남자부는 4체급 예선 경기가 펼쳐졌는데 모두가 가볍게 예선을 통과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었다.

플라이급의 김철호선수는 사이프러스선수를 판정승으로 눌렀고 국제대회에 처음출전한 밴텀급의 선상준선수도 네덜란드의 클라버선수를 뒤돌려차기 등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웰터급의 박용웅선수, 미들급의 윤순철선수도 나이지리아의 오비타선수와 사이프러스의 크리스투우루 선수를 각각 판정으로 눌렀다.

이들째 경기부터는 선수들이 첫날의 긴장된 모습보다는 다소 안정된 가운데 상대방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핀급과 페더급 2체급 경기만이 펼쳐진 이날 경기에서 강철우선수는 이집트의 하르비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 미국의 호앙리선수와 겨루게 되었다.

2연패를 노리고있는 페더급의 장혁선수는 덴마크의 모르테센선수를 맞아 빠른발로 몸통공격을 적중시키며 판정승, 8강에서 중화대북의 초큐밍과 겨루게 되었다.

3일째 경기는 대회3연패를 노리는 양대승선수가 출전, 그리스의 그라니아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코레로스를 차례로 판정승으로 누르고 8강에 올라 모로코의 시드큐이선수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헤비급의 김봉근선수도 브라질의 프레이타스와 이란의 자라크시 파르자드를 눌러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8강에 올랐다.

4일째 경기에서는 드디어 플라이급에 출전한 김철호선수가 세계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기쁨을 안았다.

김철호의 뒤를 이어 덴마크의 사림이 2위, 스페인과 네덜란드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웰터급의 박용웅도 미국의 비라사하를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안았다.

11월1일, 5일째 경기에서 미들급의 윤순철선수가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대회 10연패 달성을 나

관하게 했으나 밴텀급의 선상준은 준결에서 캐나다의 사이드나쎈선수에게 판정패, 3위에 머물렀다.

11월2일, 6일째 경기에서 페더급의 장혁은 결승에서 네덜란드의 타피라투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세계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핀급의 강철우는 준결에서 대만의 창선수에게 판정패 3위에 머물렀다.

마지막날은 세계대회 3연패를 노린 양대승선수의 노련한 경기운영, 탁월한 기량이 합쳐져 필리핀의 아브라티크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그러나 헤비급의 김봉근선수는 8강에서 독일의 올리비선수의 큰신장과 체력에 밀리며 판정패.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5, 동2개를 따내며 헤비급을 제외한 전체급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으나 역대 대회와 비교해 볼 때 한체급 한체급씩 정상을 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회대회(1985, 서울)때 금7, 은1, 제8회대회(1987, 바르셀로나) 금6, 제9회대회(1989, 서울)때 금7, 은1개를 따낸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음 세계대회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준향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의 발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기량향상과 외국선수들에 대한 분석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태권**

여자부, 기대와 우려속에 출전했으나 당당히 종합우승 거두고 개선

I. 훈련 개요

91년 1월 9일부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대비해 전년도 국가대표선수를 중심으로 남·녀선수 16명, 코치 2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선수단이 진해훈련원과 태능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해왔다. 이후 91년 4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계기로 새롭게 짜여진 국가대표선수단은 곧바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태능선수촌에 입촌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 왔다. 세계대회 코칭스텝은 연초에 내정되어 나름대로 소속팀에서 훈련지도방법 및 정보수집 등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오다가 91년 9월 24일부터 올림픽대표 코칭스텝으로부터 정식으로 바톤을 이어받아 1달간의 훈련에 돌입했다.

코칭스텝은 세계대회를 대비해 전문체력과 전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여자대표선수
들을 격려하는 홍종수
부회장



슬위주의 세부훈련계획을 세웠다. 신장과 체력이 우수한 외국선수들을 상대로 접근전에서 난타, 단순한 외국선수들의 헛점은 스텝, 모션을 통해 득점을 올리고 밀기, 발차기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번 세계대회는 최고의 여건 속에서 오랜 합숙훈련을 통해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기량면과 병행하여 정신력 배양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것은 장기간 합숙훈련으로 인한 권태감, 무기력함 등이 체력이나 기술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경기력에서 체력이 부족하면 정신력과 기술로 보완될 수 있으며 기술이 부족하면 정신력과 체력으로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력이 부족하면 체력과 기술로 보완이 어렵다. 아무리 수개월간 합숙훈련을 했다지만 정신력이 약화되었다면 오랜 합숙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여자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빼앗긴바 있어 회생의 분기점이 될것인지 주목되는 경기라는 점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전략을 세웠다.

II. 운영상 미흡한 점 많았으나 질서의식은 수준급

총 34개국 161명이 출전한 여자부경기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체급 예선전을 거쳐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루2계급씩 결승경기를 치루었다.

종합성적은 예전대로 메달집계제가 아닌 종합점수제로 진행되고 우승선수 일부는 도검감사에 응해야 했으며 3개의 경기코트 중 여자팀은 주로 3번코트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진행과정에 다소 불만스러웠던 점은 대표자회의 때 발표와는 달리 11월 28일 4체급, 11월 29일 4체급 예선전을 치루겠다고 발표한뒤 다음날이 되니 11월 29일 2체급, 11월 30일에 2체급 경기를 한다고 번복하여 각팀들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경기시간도 11월 29일 오후1시에 일부경기를 끝내고 4시간후인 오후 5시에 또다시 시작하고, 어떤 때는 오후 2시부터 경기를 하는 등 수시로 바뀌는

여자부단체성적

순위	국명	메달
1	한국	금3, 동2
2	태국	금1, 은3
3	미국	금2, 은1
4	스페인	금1, 은1, 동3
5	중화대북	금1

경기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관중들은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나와 광적인 응원도 했지만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그리이스 관중들의 매너는 높이 평가되었다.

III. 체급별 경기내용

<플라이급>

- 선수 : 이화진 (경희대3년:88서울올림픽 2위)
- 참가국 : 24개국
- 우승선수 : 대만 Tang Hui-wen ('90년 월드컵 1위)
- 독일 Vetter ('91년 월드컵 2위)

이집트와의 1차예선전에서 이화진선수는 다소 긴장한 탓인지 불필요한 동작이 많았으나 2:0판전승을 거두었다.

캐나다와의 2차예선전에서는 들어찍기와 몸통공격후 얼굴돌려차기, 주고받는 난타전으로 6:4판정승, 준준결승전에서는 받아뒤틀차기가 돋보이는 터키의 Arzv Tan 선수를 맞았다. 밀어차기가 자신이 없는 이화진선수는 페인팅과 모션으로 대처했으나 받아뒤틀차기에 거의 실점을 당해 8:6으로 예선탈락하고 말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정확하지않고 발을 뺀지 않는 뒤차기와 얼굴을 스쳐도 득점을 인정하는 국제대회에 대처하는 방안이다.

<웰터급>

- 선수 : 조항미 (인천체고3년:국제대회 첫출전)
- 참가국 : 18개국
- 우승선수 : 미국 Limas ('90월드컵 1위)
- 스페인 Bistuer ('90, '91월드컵 2위)

부전승으로 1차예선을 통과한 조항미선수는 예선2차전에서 멕시코선수를 맞아 여자선수 중 가

장 화이팅과 파워가 좋은 선수답게 일방적인 경기를 벌여 4:0판정승을 거두었다

호주와의 준준결승전에서는 무리없이 경기를 리드하여 3:0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준결에서 맞은 미국의 Limas선수는 190cm에 가까운 긴 신장을 이용하여 오른앞발 몸통 얼굴돌려차기가 실패하여 얼굴돌려차기에 1실점했고 2회전 오른발 앞돌려차기가 적중했으나 동시에 얼굴돌려차기에 1실점, 3회전에 폼바꾸어 뒤차기, 좌폼으로 바꾸어 여러동작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긴발에 차단되어 역부족으로 2:3으로 동메달에 그쳤다.

Limas선수는 스페인 Bistuer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우승했다.

〈밴텀급〉

- 선수 : 박동선(성신여대3년 · '90월드컵 2위)
- 참가국 : 28개국
- 우수선수 : 스페인 Solis('91월드컵 1위)
- 미국 Murray(제2회세계대회 2위)

멕시코선수와 1차예선전에서 박동선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연결동작으로 몸통, 얼굴을 가격하며 4:0판정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랐다.

캐나다선수와 2차전에서 1회전 커트후 빠른 발 돌려차기로 1득점, 2회전 커트발차기를 하다 왼앞발후리기에 페인팅을 써서 받아차기로 1득점, 난타 2:2로 4:3 판정승.

인도네시아와의 준준결승에서는 스텝과 모션으로 다양하게 공략하여 3:0 판정승.

준결승전은 영국과의 대전이었다. 중국의 강호를 누르고 올라온 미국의 Murray선수를 어렵게 누른 영국의 Walker선수를 대비해 코칭스텝은 미국대 영국선수의 경기를 비디오로 몇번이고 분석하여 대책을 세운뒤 시합에 임했다. 영국의 Walker선수는 긴다리로 동작이느려 빠른스피드와 스텝을 보유했던 박선수의 맥을 잡지못해 6:3으로 패하고 말았다.

준결승전서 발바닥이 5cm가량 찢어진 부상을 안고 결승전에 진출한 박선수는 총득점 3:3이 되면서 종료 20초를 남겨놓고 기압과 동시에 빠른걸음 왼발얼굴 돌려차기가 그대로 적중하여 환호와 동시에 우승을 감지했으며 한국선수에게 안겨준 첫금

메달에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미들급〉

- 선수 : 양인덕(상명여대4년 · '90월드컵 1위)
 - 참가국 : 16개국
 - 우수선수 : 대만 Tang Uni-Ting('91월드컵 1위)
- 브라질과의 예선1차전서 찬스에 강한 양선수는 왼발받아차기와 들어찍기로 4:1판정승.

터키와의 준준결승전서 빠른걸음으로 얼굴돌려차기, 오른앞발 받아차기, 왼발받아차기로 3:0 판정승.

주최국인 그리이스와의 준결승전은 양선수가 받아뒷차기, 들어찍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6:0의 큰 득점차로 판정승을 거두고 그리이스 관중들에게 침묵을 지키게 했다.

결승전은 미국의 Aron선수와 격돌하게 되었다.

1회전 시작과 동시에 왼발앞돌려차기로 선취점을 얻고 또한번의 동작으로 1득점했으나 Aron선수의 긴발에 피할 수 없어 1실점. 2회전 서로 스텝 없이 차고 붙는 동작에서 경고 1개씩을 받았으며 그가운데서 득점1개씩을 받았고 3회전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라인박경고 1개를 받았다. 만약 밀리면서 스치는 발차기라도 나오면 금메달의 꿈은 꺾어지는 순간들이었다. 노련한 양선수는 상황을 감지한듯 마지막 까지 차고 붙으며 Aron선수의 엄청난 파워를 저지하였다. 전광판에 청코너인 Aron선수의 3회전 점수가 2점이 나와 4점이 되었고 경고 2개를 받은 양선수는 1점이 나와 4:4가 되자 순간 관중들의 열광은 경기장을 떠나갈듯 했다. 동시에 박선수에 1점이 더올라가자 희비는 바뀌어 감격의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핀급〉

- 선수 : 김진성(송곡고2년 · 제9회 아시아선수권 2위)
- 참가국 : 19개국
- 우수선수 : · 대만 Wu Shau-Chea('90월드컵 1위)
- 스페인 Delgado Torres('90월드컵 1위)
- 멕시코 Torres('90월드컵 2위)

멕시코와의 1차예선은 김선수가 오른발 받아차기로 선취점을 얻어 자신감속에 4:2로 무난하게

첫경기를 풀었다.

그리스와의 예선2차전은 홈팀이라 관중들이 열광은 했지만 김선수가 침착하게 받아돌려차기, 받아뒤틀차기, 돌려찍기 등으로 4:1판정승.

인도네시아와의 준결승전은 뒤틀차기와 뒤후리기 특기인 인도네시아 선수를 밀어차기로 첫 동작을 저지한뒤 연타, 받아차기 등으로 6:0판정승.

스페인과의 준결승전은 결국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판정패하고 동메달에 머물었다.

Delgado선수는 대만의 Chen선수를 누르고 결승 진출한 터키의 Gulnur선수를 제압하여 우승했다.

〈페더급〉

· 선수: 박진경(상명여대4년·제9회 아시아선수권 2위)

· 참가국: 21개국

· 우수선수: 대만 Tung Ya-Ling('90, '91년 월드컵 1위)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오른 박진경선수는 빠른스피드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캐나다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

터어키와의 준결승전은 득점결과 3:3에서 우세를 빼앗기며 아깝게 예선탈락하고 말았다.

터어키의 Aysegul선수는 대만의 Ling선수에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라이트급〉

· 선수: 정은옥(상명여대4년·국제대회 첫출전)

· 참가국: 22개국

· 우수선수: 대만 Yian-Chen(제9회 아시아선수권 1위, '90·'91월드컵 1위)

네덜란드와의 준결승전은 네덜란드 선수의 오른발 짚게차고 왼발들어찍기에 정선수가 다운까지 가는 어려움에 처했었다.

평소 오른쪽 허벅지 부위 임파로 인해 좋은 컨디션이 아니어서 코칭스텝을 불안하게 했으나 노력한 경기운영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앞서 헤비급 백영미선수가 미국의 Love선수에게 패했기에 남은 2체급에서 대만이 우승하면 1점차로 종합우승을 놓치게 되어있었다.

오직 기대는 정선수의 분전이었었고 상대는 최근

라이트급에서 독주하고 있는 대만의 Yian-Chen 선수였다.

두선수 다 신장이 우수한데다 Chen선수가 국내선수와 유사한 경기력을 갖고 있어 국내대표선발 결승전경기를 방불케했다. 다양한 기술을 득점을 주고받던 두선수는 결국 6:5로 정은옥이 판정승, 마지막까지 따라붙던 대만의 종합우승에 쐬기를 막았다.

〈헤비급〉

· 선수: 백영미(경희대3년·'90월드컵출전)

· 참가국: 13개국

· 우승선수: 미국 Love('90월드컵 1위와 다수입상)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오른 백영미선수의 상대는 2m가 넘는 흑인의 주부선수로 10년간 미국 대표선수의 자리를 지킨 Love선수였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체력안배와 공격기술이 현저히 떨어졌으나 신장과 힘을 바탕으로 백선수를 누르고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IV. 여자태권도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이 여자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대회를 계기로 여자태권도 앞날이 결코 어둡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며 나아가서는 열악한 환경의 여자팀을 태권도인 모두가 좀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종주국의 자존심과 태극기를 더높이 휘날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대회를 경험으로 여자태권도의 향상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본다.

1. 여자태권도선수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선 전국체전 시범종목에라도 먼저 채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금번 세계연맹총회때 기량이 평준화된 여자부 부터 올림픽에 가입코자 결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2. 훈련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사이에 호흡이 일치할수 있는 얼마간의 합숙훈련이 꼭 필요하다.
3. 실전경험을 위해 여건이 주어진다면 소속팀에서 부터 해외전지훈련, 교환경기 형식으로 외국팀과 잦은 교류를 통했으면 한다. **태권**

세계대회를 통해 재조명해보는 태권도의 모습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던 제10회 남자와 제3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면서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 한지도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태권도인들의 노력에 의해 성장 발전된 태권도의 모습은 많은 국제대회를 통해서 그 위상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세계대회에도 다수의 회원국이 참가하여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매해가 다르게 향상되는 기량과 기술의 변화는 높은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태권도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중추국 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번 대회를 냉정히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1. 매트관리에 따른 선수보호 문제.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바로 안전성의 문제다.

이런 취치아래 많은 종류의 보호장비가 개발되어졌고 권장해 왔다.

그러나 중요시 해야할 경기장 바닥의 매트관리는 전무한 상태여서 마루바닥에 고무천막을 씌워논채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지출이 필요 하겠지만 선수들의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에선 정해진 규정규격을 지킬 수 있는 관리체계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주신규 · 임신자

(*92바르셀로나올림픽 남녀대표팀코치)

2. 심판관정과 그에 따른 심판원 교육문제.

인간의 잘잘못을 판정함에 있어 척도가 되는 근거로 법이 존재하듯이 경기를 판정할 수 있는것은 경기규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다.

국내경기와 비교해서 이번 대회때 나타난 현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득점을 채점함에 있어 몸통과 얼굴 득점을 동일시(1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상단득점의 남용

즉 스쳐지나거나 뒷머리를 맞았을 경우 무조건 득점으로 처리 한다는 것.

③경고에 대한 각자의 개별성

특히 여자경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기준이 심판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3가지 유형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순간적인 오판에 의해 경기의 흐름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이런 오판의 원인은 대다수 외국 심판원들의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심판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일관성 있는 규정에 의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2년에 한번인 세계대회를 통해서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심판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교육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국제 심판원들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3. 국내경기 방식과 국제경기 방식의 차이(?)

국내는 올해부터 즉시채점 즉시표출이란 방식으로 경기운영을 computer system화 시켰다.

그로인해 전자식 전광판을 도입해서 국내 각종 대회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채점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뭔가 어색함을 느낀채 경기에 임해야 했다.

좀더 경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통일된 경기방식이 요구되어 진다.

이상과 같이 판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는 결코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인상적인 일은 외국선수과 관중들의 반응

이었다.

공격을 많이하고 상단기술에 많은 점수를 주는 관중의 시각과 득점위주의 기술로 점수를 선택하는 우리선수에 대한 야유의 함성이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우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또한 자신의 경기판정에 대해 불복종하는 외국 선수들의 모습을 종종 볼때 우리 국내경기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판정시비의 모습이 그대로 세계대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과연 어디서 기인되는 현상일까? 태권도인들의 자각과 반성이 필요함을 느낄수 있는 일들로 대회 이후 줄곧 여운을 남겼던 모습이었다.

태권도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하는 민족고유의 무도라고 많은 외국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들(외국인)은 왜 태권도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태권도인이길 자청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사람답게 올바른 삶을 살기위한 교육의 한 방편으로 선택 한다면 잘못된 판단일까?

오판에 의해 자꾸 쌓여가는 불신의 마음.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진정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자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하며 무엇을 배우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믿음과 화합 속에 진정한 승자에게 모든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렁찬 환호와 박수로 열광할 수 있는 우리의 태권도이길 바라고 싶다.

이번 제10회와 제3회 여자세계대회를 계기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선수들의 안전관리, 심판의 교육문제, 선수의 기술개발과 올바른 정신교육, 그것을 관리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능력과 책임 등 모든것이 충분히 고려된 행정력이 뒷받침 되고 노력될 때 우리의 능력은 새롭게 부상되고 우리의 위치를 지속시킬 수 있다.

라이트급 양대승 세계대회 3연패 달성



이번 대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남자 태권도 대표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남자 10연패, 여자 3연패를 이루느냐 하는 이었지만 선수들 중에서는 양대승의 세계대회 3연패 도전이 성공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양대승은 지난 87년도와 89년도에 개최된 제8회 및 제9회 세계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이래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김종기, 정국현에 이어 세계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 1년간의 합숙훈련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도해주신 지도자들과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데 뒷받침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선수의 주특기는 원발 커트발, 오른발 뒷발 돌려차기.

양선수에게 이렇게 영광이 돌아온것은 그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다. 즉 누구보다도 상대방 선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그 선수의 특기와 헛점 등을 살피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온 것이다. 항상 시합 때면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다니며 출전하기 직전엔 상대방선수를 어떻게 공격하고 수비해야겠다는 계획을 짜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을 알고 있는 한 자신있게 공격과 수비를 구사하면서 주특기를 이용해 확실한 득점을 낸다는 전략을 세워왔다는 것이다.

양대승선수가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유치원 때부터.

동네의 지성체육관에서 김경찬사범에게 배우기 시작해 송천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실력을 닦았다.

양대승선수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대회에 출전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번도 메달을 목에 걸어 보지 못했다는 것. 당시 너무나 재능이 없는

것같이 중간에 태권도를 그만두기 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렸을 때의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어 동성중학교 1학년때 전국신인선수권대회에 나가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 국제대회 우승보다도 제게 있어서는 그때 느낀 감동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회는 전적증명서를 떨 때마다 미소를 짓게 합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가져다준 승리이자 이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대승선수는 서울체고와 한체대를 거쳐 실업팀인 조선맥주의 선수로 활약하면서 라이트급 정상을 지켜왔다.

태권도계에서는 양대승선수 하면 라이벌로 전 국가대표 박봉권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박봉권선수는 유치원때부터 양대승선수와 함께 같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해 고등학교만 서울체고와 동성고로 갈라졌을 뿐 늘 함께 붙어다니며 태권도를 해온 선의의 경쟁자이다.

“사람들은 저희 두 사람을 경쟁자라고 보지만 사실은 친형제이상의 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저희 두사람을 자식들처럼 보살펴왔습니다. 또한 매년 번갈아가면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었는데 86, 88년도에 박봉권선수가 87, 89년도에 제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박봉권선수가 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은퇴를 하여 제가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쟁자로 많은 기술적 향상을 피하는데 서로가 많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양대승선수도 선수로서 은퇴할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조선맥주소속으로 있긴 하지만 올 해로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 공부를 마친 후 유학을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훗날 대학강단에서 후배를 지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엔진**

세계태권도연맹 제10차 정기총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중에 세계태권도연맹 제10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최세창회장과 강원식전무이사가
회의대표로 참가한바 있다. 여기에서는
총회에서 거론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대회에 앞서 10월 26일 오후 3시부터 그리스 아테네 Peace & Friendship Stadium에서는 5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거론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차기대회 개최지 선정문제-1993년도에 개최될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는 일본과 대만이 유치를 신청, 경합을 이루었으나 신청국들의 제반 미비 사항으로 추후 결정기로 유보했다.

▲신입회원국 승인-미얀마, 불가리아, 소련, 몽고, 아일랜드

▲'92 바르셀로나올림픽 태권도 경기

- 일시: 1992. 8. 3~5(3일간)
- 장소: 스페인 바르셀로나 Palau Blaugrana
- 참가선수: 총 128명 (남자64, 여자64)
- 참가국: 남자26개국, 여자25개국

▲행사계획

(1992년도)

-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1.31~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제25회 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8.3~5, 스페인 바르셀로나)

- 제8회 팬암태권도선수권대회(날짜미정,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즈)
- 제9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날짜, 장소미정)
- 제3회 세계 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날짜, 장소미정)

(1993년도)

- 월드게임 태권도경기(7.22~8.1, 네덜란드 헤이그)
-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날짜, 장소미정)
- 제5회 중앙아메리칸 게임 태권도 경기(날짜, 장소미정)
- 제17회 동남아시아게임 태권도 경기(날짜, 장소미정)

▲기타사항

- 5월 28일을 세계태권도인의 날로 정하자는 유고태권도 연맹의 제안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
- 차기총회개최-차기 대회 개최지가 미정이므로 결정되는 대로 추후 통보.
- USTU주최 US OPEN대회-모든 회원국의 유단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1992.2.13~16,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즈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전북, 10년째 서울 제치고 우승

제72회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10. 8-12, 전주고체육관)



대회를 주최한 전북협회임직원과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북선수단.

“'92년 대구에서 다시 만나다.”

「문화, 화합, 질서」를 대회구호로 지난 10월 7일 '예향' 전북에서 개최된 제72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끝에 '92년 대구에서의 재회를 기약하고 막을 내렸다.

15개 시도지부와 미국, 일본, 브라질에서 온 3개 해외동포팀, 387명의 선수가 참가한 태권도 경기는 전북 선수단이 10년패권의 서울팀을 눌러 11년만에 종합우승이 지방 팀으로 돌아가는 이변을 낳았다.

홈팀 전북(금3, 은5, 동8)이 메달레이스에서 서울(금6, 은2, 동3)에 뒤지고도 우승을 하게 된 배경은 시드배정에 따른 어드밴티지와 준준결승에서의 분전이 주효했다는게 경기후평(後評).

24체급중 1차전에서 부전승3, 해외동포팀과의 경기17로 20체급이 준준결승에 진출하여 가히 인해전술이 가능할 정도. 여기에는 해외동포팀이 참가신청을 늦게 함으로써 1차전 전북 부전승시드에 배정되어 전북에 크게 일조(一助)한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준준결에서 20체급중 16체급이 진출(서울 11체급)하여 전복팀으로 하여금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한편 서울팀은 고등부와 일반부에서의 부진이 주요 패인이 된듯(각각 2명씩 메달권 진입).

준결승에 각각 8체급씩을 진출시킨 전복과 서울팀은 다소 복잡한 체전체점 방식과 겸손(?)으로 서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결국 결승결과에 전혀 관계없이 동메달권에서 분전한 전복팀이 우승하여 권불십년(權不十年)을 입증하였다.

구제불능 경기장 질서

전주 초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경기는 체전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체점기를 사용하여 일간지 기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신문사 기자는 『말씀 많은 태권도 경기장에 컴퓨터체점기가 도입되어 경기장질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심을 표했으나 경기3일째인 10일 또다시 폭력사태가 벌어지자 『규정·용구는 변해도 인걸이 의구(?)한 탓』이라고 일침(一針).

경기장에는 전주시내 국민학생들이 연일 2~3백명씩 나와 각 선수단을 질서정연하게 응원하는 등 주축도로서의 성의를 표하였으나 각종 크고 작은 항의 사태로인해 도리어 이들 국민학생들에게 부끄러워 임원들은 「태권도 체전누락론」과 함께 한숨.

재미선수단 전원 계체불참, 실격

한편 이번 체전에는 재미·재일·재브라질등 해외동포 선수단 29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는데 24체급의 대규모선수단을 구성해 귀국한 재미동포팀은 「전체급 계체 불참 및 실격」이라는 진기록을 낳아 빈축을 샀다.

시도지부 임원들은 『체전을 통해 모국방문의 기회를 갖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지만, 결국 대진 구성상의 혼란을 주면서 까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참가신청을 한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씩.



태권도 종합성적

순위	시도	급	은	동	점수
1	전북	3	5	8	2308
2	서울	6	2	3	2058
3	광주	2	3	5	1519
4	전남	2	2	5	1208
5	충북	1	3	2	1108
6	대전	2	1	3	1017
7	경기	1	2	2	971
8	강원	1	0	6	943
9	인천	2	2	1	892
10	제주	2	1	2	851
11	대구	0	1	5	758
12	충남	0	0	3	636
13	부산	1	1	1	564
14	경북	0	1	1	511
15	경남	1	0	1	496

지하철 정승환, 화려한 은퇴식

체전 시상식후 전 국가대표 정승환 선수(서울 지하철공사)가 전국의 임원, 선수들의 격려속에 은퇴식을 가져 이체.

서울시 일반부(페더급) 선수로 출전한 정승환 선수(27세)는 76년 국민학교 시절 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여, '85-'87년까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월드컵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베테랑급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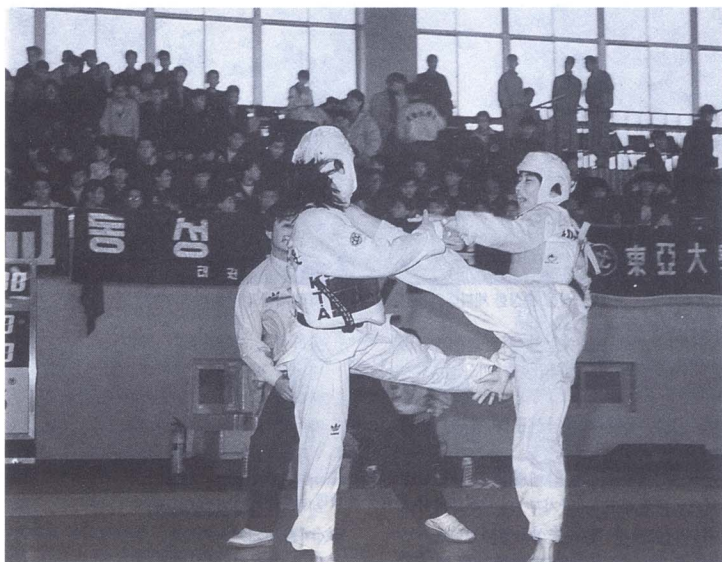
체전출전 6회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정승환은 이번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 18년간 선수생활을 마감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날 은퇴식을 지켜본 많은 도장선수들은 『그간 비인기종목이라는 설움속에서도 꾸준히 선수생활을 해온 정승환 선수에게 다소의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좋은 전통으로 살려나갔으면 한다』고 한마디씩. **태권**

박종범(한체대), 박혜영(경희대) 남녀 최우수선수상 수상

'91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11. 6-8, 국기원)



'91년도 남녀 각 체급 최고의 선수를 뽑는 전국 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만 참가한 이 대회는 '92년도 국가대표 예선전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 324명(남자 215명, 여자 109명)의 많은 선수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의 각 체급 1,2위자는 '92년도 대표 최종선발전의 출전권이 주어져 각 팀의 열띤 경쟁 속에 접전을 벌여 남자부에서는 한국체대와 체육부대, 동아대와 동성고가 여자부에서는 체육과학대학과 경희대, 상명여대가 각각 2명이상씩 출전권을 확보하였다.

한편 남자부 최우수선수로는 결승전 까지 전 국



지도상을 수상한 체과대의 권혁중코치(좌)와 한체대의 문원재코치(우)

가대표 이현석(동아대)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체대 박종범선수(미들급)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여자부에서는 경희대 박혜영선수(미들급)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지도상은 남녀 각 부에서 금메달을 3개씩 획득한 한국체대 문원재코치(남자부)와 체육과학대 권혁중코치(여자부)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금년을 결산하는 대회이자 대표선발 예선전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다수의 향의사태가 예견되었으나, 대회3일간 1건의 향의도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심판부의 공정성이 유독 돋보였다고 참가했던 임원·코치들이 한마디씩.

▲ 각체급별 우수선수

〈남자부〉

핀급 김정오(동성고)

플라이급 서성교(한국체대)
 밴텀급 박형식(한국체대)
 페더급 김병철(국군체육부대)
 라이트급 신경수(청주대)
 웰터급 임영호(경희대)
 미들급 박종범(한체대)
 헤비급 김제경(동아대)
 〈여자부〉
 핀급 강선경(인천체고)
 플라이급 김민정(체과대)
 밴텀급 김은숙(체과대)
 페더급 권혁실(체과대)
 라이트급 박정희(한국체대)
 웰터급 박선미(상명여대)
 미들급 박혜영(경희대)
 헤비급 박은주(상명여대)

국제대회보다도 더 치열한 접전 '92국가대표선발대회

(12.26~28, 상무체육관)



태극마크를 향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전.

'92바르셀로나올림픽과 10회아시아선수권대회를 겨냥한 시위가 당겨졌다.

'92년도 국제대회를 대비한 국가대표선발전이 지난 12월9일부터 12일(1차), 26일부터 28일(최종)까지 개최되었다.

'92년 1월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로 인하여 12월에 열리게 된 이번 선발전은 혹한 속에서도 참가선수들의 태극마크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종 경기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최종선발전은 각 체급별 '91대표2명, 우수대표2명, 1차선발전4명으로 걸러진 초정예 8명이 참여하여 국제대회보다 더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이번 최종전에서 선발된 1위자는 1월 한달간의 합숙훈련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참가방식에 관심이 모아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4월 중 2개체급 4명(2위까지)이 리그전을 통한 재평가전을 가져 결정기로 되었다. 올림픽에는 세계연맹의 방침에 따라 한국은, 남자 플라이, 페더, 웰터, 헤비4체급과 여자 편, 밴텀, 라이트, 미들4체급을



파견기로 한 바 있다.

新星—핀급 진승태

주요대회의 상위 입상자 64명이 참가한 이번 최종전에도 대학생이 34명으로 50%가 넘어 태권도의 최고 기량은 대학부임을 입증하였으며, '91년에 비해 고등학생도 대폭 증가(13명, 20%) 하였으나 1명만이 선발되어 기량차를 실감하였다.

그러나 91년도 고등부 핀급 최강자로 손꼽히는 경남체고 진승태선수(한국체대진학예정)가 현·전 국가대표인 강철우·임창섭(상무)선수를 준결과 결승에서 차례로 꺾으며 1위로 선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진선수는 '91년 중별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내 고등부경기를 석권한 기린아로서 주위에서는 당분간 핀급에서 그의 독주를 예상하기도.

권태호·강창모 캅백

8명의 우승자중 5명이 대학생으로, 전통의 강팀 한국체대(2명)와 경희대(2명), 동아대(1명)가 각각 개가를 올렸다.

이중 '88올림픽메달리스트인 경희대 권태호(밴텀)와 8회세계선수권자인 동아대 강창모(페더)등 전 국가대표들의 재기가 눈에 띄었다.

기량의 평준화로 유독 대표진의 물갈이가 심한 태권도종목에서, 전대표의 재기가 대표선수연임보다 몇 배 더 힘들다고.

플라이급결승에서는 한국체대의 서성교와 박재성이 격돌, 서선수가 판정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4월의 재평가전에서 다시 한번 선후배간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라이트급(1위 박의성)과 웰터급 결승(1위 임영

호)에서는 한국체대와 경희대가 각각 자존심 대결을 벌여 1승1패를 기록 화국(和局)을 이루었다.

미들급과 헤비급은 중량급 전통의 강호인 국군체육부대가 차지했다. 군입대후 괄목할 성적을 거두고 있는 미들급 '91대표인 윤순철은 한국체대의 박종범을, 김제경은 전대표이자 상무팀 선배인 김현일(지하철공사)을 각각 누르고 아시아선수권대회의 출전티켓을 따냈다.

고재경, 한국웰터급 간판 굳혀

한국 여자부 경량급 차세대 주자인 김진성, 진용순, 이승민, 김지향이 탈락하여 미완의 대기로 남고, '89세계대회 플라이급 챔프 원선진의 재기가 돋보였다.

이순영(고양종고, 핀급) 모선영(인덕공고, 플라이급) 원선진(효원고, 밴텀급)이 각각 대학부 언니들을 제치고 1위로 선발, 경량급에서의 여고생 파위를 자랑했다.

라이트급과 웰터급에서는 '91대표인 정은옥(상명여대)과 고재경(성신여대 졸)이 재등극함으로써 대표교체가 잦은 여자부의 간판으로 부상했다.

정과 고선수는 '91세계대회와 월드컵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상급 선수로서 향후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의 체면을 유지시켜줄만한 중견. 다만 두선수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참으로 마땅한 팀이 없어 은퇴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주위에서도 『기량과 노련미가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소속팀이 없어 은퇴를 해야한다면 한국 여자태권도의 큰 손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페더, 미들, 헤비급에서는 김성숙(성신여대), 이선희(체과대), 정명숙(혜성여고)선수가 각각 태극마크의 영예를 차지했다. **태권**

6.25때 헤어진 부친과 42년만에 상봉

청송체육관 이봉춘 사범



42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이봉춘사범과 부친 이대봉옹이 서로 얼싸안고 있다.

42년전 헤어질 당시 엄마 뱃속에 있던 아들이 극적으로 부친과 상봉해 보는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40여년전 6.25전쟁때 대학재학중(단국대법정과)의용군으로 나섰다가 중공군에 편입돼 중국에 억류된 이대봉옹(68세·중국흑룡강성대

경시)과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이봉춘사범(41세·청송체육관)이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 출입구에서 상봉한 이들은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 얼굴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아들과 사진으로

얼굴을 익혀야 했던 부자간의 상봉이었다.

42년만의 부자상봉은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의 오열과 희미한 기억조차 없는 아들의 생경함으로 더욱 가슴 아팠다.

감정이 폭발친 이들은 서로가 혈육임을 직감, 달려들어 치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울었다.

생전 처음 만난 아들과 상봉한 이옹은 눈물도 잊은채 『이 아이가 전쟁의 산물』이라며 『다시는 25사범과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의 상봉은 중국흑룡강성 대경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옹이 지난 89년 자신의 고향으로 편지를 해 형제들의 생존을 확인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이옹은 형 종률씨(72세)로부터 아들 이봉춘사범은 몇명의 편지 왕래에 이어 이번에 아버지를 고국으로 초청, 이날의 감격적인 부자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克己의 무도인 유삼동

팔이 하나 없어도 태권도 품새는 완벽



11월 3일 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전북 제5차 승품단 심사대회에서는 못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태권도인이 있었다.

3단에 응심한 올해 27살의 유삼동씨.

유연한 몸짓과 절도있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힘이 절로 솟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두팔을 뻗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팔만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팔이 하나 없이도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관중과 응심자들은 심사를 마친 그에게 많은 박수로 그를 격려하며 축하해 주었다.

유삼동씨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다.

“어릴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는 선배 한분이 저도 태권도를 할 수 있다며 계속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게하라 싶었는데 그 선배가 정
그렇다면 이리정의도장의 김보
익 관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결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을 만나뵈고 태권도를 배
우고 싶다고 했더니 패히 승낙
하시면서 얼마든지 태권도를 수
련 할 수 있다며 희망을 주셨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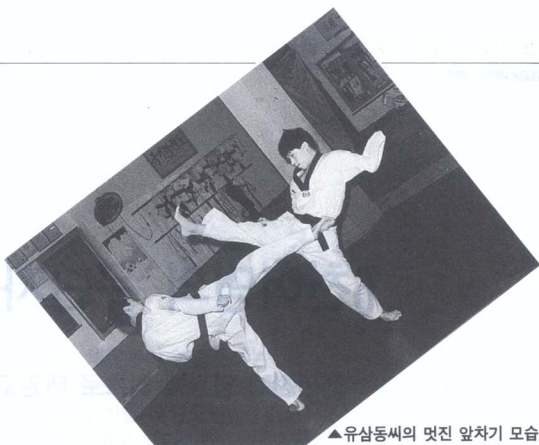
이렇게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이룰수 있
었다고 한다.

그러나 태권도의 수련이 그렇
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련
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육체적
으로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인해졌습니다. 살
아나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같이 신체적
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과의 싸움
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
고는 도중 하차 하기 쉽습니다.
다른 수련생들보다 몇배의 인내
와 노력이 있어야만 자신을 이
길 수 있을 겁니다. 용기를 갖고
끝까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그를 지도해온 김보익 관장은
“지금까지 7-8년을 가르쳐왔지
만 단 한번도 짜증스러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웃는 일
굴에 예의바른 행동으로 수련생
들의 모범이 되어왔으며 태권도
실력에서도 우수한 기술과 절도
있는 동작을 보여줘 태권도인의



▲유삼동씨의 멋진 앞차기 모습.



▲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함께



◀이리정의도장 김보익관장(우측)과 함께

공지와 자량이 아닐 수 없습니
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끈이 하나 없는 불편
한 몸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다른 수련생
들보다 몇배의 노력 끝에 이제
3단의 결실을 보게된 유삼동씨.

그는 현재 구두닦는 일을 하
고 있지만 조금도 부끄러움 없
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
다며 앞으로 보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희망에
가득차 있다.

〈전북 이운영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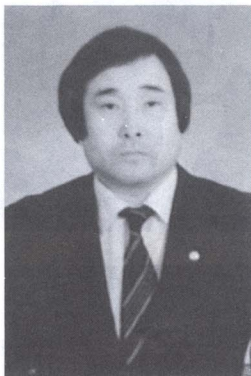
6천여명의 유단자 배출

35년전에 영광에 최초로 태권도장 개관

“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속에
유단자와 선수가
가장 많이
배출된 손꼽히는
도장중의 하나이다.

”



조영기 관장

영광은 옛부터 터가 센 곳이다.

불의와 억압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났던 이곳 사람들의 기개는
이 지방의 억센 토양 때문이라
했다.

이러한 “맥”속에서 이고장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
녀가는 곳이 바로 영광을 백학
리 35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영
광체육관이다. 1956년 이고장에
선 처음으로 기압소리와 함께
개관을 한 영광체육관은 200평
의 부지에 40평의 도장과 지금
은 합숙소까지 갖추고 트레이닝
장도 마련하여 강인한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속에 단일도장으로 유단자
와 선수가 가장 많이 배출된 손
꼽히는 도장중의 하나이다.

현재 6천명이 넘는 유단자를
배출하였고 체육관문을 두드린
청소년이 무려 1만명이 넘는다.

전라남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많은 입상으로

“
오늘도 영광 체육관의 기압소리는
끊어지지않고 전남의 우수한 선수배출과
지덕체를 겸비한 태권도인을
양성하고 있다.
”

도장의 사방벽이 상장으로 도배
를 할 정도이다.

현재 영광체육관에서는 관원
3백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영광군
관내 11개 읍·면에서 도장이 운
영되고 있으며 6개 읍면의 학교
체육관으로는 영광종합고등학교
와 영광해룡중·고등학교에 태
권도부가 설치되어 이고장 청소년
들의 정신향양에 큰 몫을 해내
고 있다.

영광체육관의 특징을 찾아본
다면 40여 성상속에서 체육관개
관이라 휴일을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기압소리가 중단된 적이 없
는것이 특징.

국가대표 선수로는 진 중의(대
한체육과학대학교수), 고 영철
(전남협회대표선수), 박 은석(
'90국가대표)선수가 배출되었다.

현재 태권도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 인성(전 조선대학체육
대학교수), 진 중의(대한체육과

학대학교수), 최 경량(영광종합
고교사·국제심판), 장 창영(심
판), 최 귀억(영광해룡고교사),
임 윤택(서울시 관장), 정 진도
(서울시 코치), 해외에서 활약하
고 있는 사범으로는 스페인에서
이 환선, 이도연 사범, 호주에서
이 경연 사범, 독일에서 윤 관중
사범, 미국에서 김 완섭(시카고)
박 행순(뉴욕) 박 태현(뉴욕)씨
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40여 성상의 전통속에서 반평
생을 태권도와 함께 살고 있는
조영기관장은 현재 8단으로 전
남에서는 최고단자중의 한사람.
현재 KBS광주 방송총국 보도국
기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체육진흥회 전남지부 회장,
전남체육회이사, 전남 태권도협
회부회장, 전남 체육회 선수 강
화위원, 영광군체육회상임부회
장을 맡고 있으며, 82년도 아시
아태권도 대회참석(싱가폴), 83

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참석(덴마
크), 90년도 제9회 아시아태권
도 선수권대회(중화대륙)에 한
국선수단 단장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아시아선수권대회중 조영
기관장은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룬채 선수들
에게 알리지않고 선수들을 뒷바
라지하여 아시아게임 9연패 기
록을 세웠다.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면서 결
혼적령기가 된 제자들에게는 주
례까지 서야될 형편이라 토요일
과 일요일엔 주례로 바쁘다. 현
제까지 8백쌍이 넘을 정도로 주
례를 맡아 이고장에선 주례왕으
로 불릴 정도이다.

오늘도 영광 체육관의 기압소
리는 끊어지지않고 전남의 우수
한 선수배출과 지덕체를 겸비한
태권도인을 양성하고 있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가라데, 극진가라데, 태권도

'94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가라데의 정식종목 채택이 유력시 되고있다. 동양3국 무도스포츠중의 하나로 전세계에 알려져 있는 가라데가 태권도, 우슈에 이어 아시안게임에 등장함으로써 향후 각종 국제체육무대에서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최근 모 스포츠신문에 일대기가 연재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영익씨의 국제가라데연맹 (IKO)세계대회에 서울신문 고두현기자가 다녀왔다.

30년이상 스포츠현장을 취재해온 그의 담담한 스케치를 통해, 관중과 괴리된 국내 태권도의 현실을 투영해 볼만하다.

〈편집자 주〉



고두현

서울신문 체육부기자

- 1935년생
- 58년 한국해양대학 항해과졸
- 60년 서울신문사 견습기자로 입사
체육부 차장
주간스포츠 부장
편집위원(부국장급)
체육부장(국장급)
현 체육부 기자(국장급)

지난 11월 2일부터 사흘동안 일본 도쿄교에서 열렸던 국제가라데도연맹(IKO) 주최 제6회세계 가라데도선수권대회를 취재했다.

일본의 가라데는 크게 두파로 나누인다. 하나는 태권도와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고있는 세계가라데도연합(WUKO)의 가라데다. WUKO가라데는 경기방식이 상대방 몸 앞에서 공격을 멈추도록 돼있다.

따라서 승패는 어느쪽선수의 공격이 보다 빠르고 정확했느냐를 가려내는 심판의 판정에 달려있다.또 이 WUKO가라데는 형(「가다」)를 매우 중시해서 경기종목에 형(「가다」)가 따로 마련 돼있을 정도다. WUKO가라데가 상대방의 몸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경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까닭은 선수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란다.

또 하나의 가라데는 우리의 핏줄인 최영익씨(일본이름=오오야마 마스다쓰)가 총재를 맡아 이끄는 IKO의 극진가라데다. 극진가라데는 실전가라데 라고도 불린다. 그 까닭은 극진가라데는

선수들의 건강보호문제로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긴해도 극진가라데의 인기가
대단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사흘동안의 대회기간중, 경기장의 문을
열기전부터 개장시간을 기다리는 관중들이 경기장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것도 인상적이었다.

호구도 걸치지 않고, 손에 의한 안면공격, 하복부의 급소공격 등만 금지할뿐 나머지 공격은 거의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진가라데의 경기는 박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당연히 경기도중 상대방의 가격을 맞고 실신하거나 턱뼈,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선수들이 적지않게 나오기 마련이며 경기장에서 일어나지 못해 들것에 실려 나가는 섬찔한 광경도 자주 보게 된다.

WUKO쪽에서는 극진가라데의 이런점을 지적, 극진가라데가 스포츠 아닌 싸움 가라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극진가라데의 총수인 최영의 IKO총재는 『극진가라데는 스포츠라기 보다는 무도다. 상대방 몸 바로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가라데는 무도가 아니라 가라데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WUKO를 비롯한 극진가라데 비판세력에 일침을 가한다. 선수들의 건강보호를 앞세우는 WUKO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상대방 몸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가라데는 아무래도 무도로서의 박력이 약한것도 사실이다. 극진가라데는 무도로서의 박력은 대단하나 선수들의 건강보호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알맞은 대책이 아쉬운 느낌이 든다. 그러고보면 가격은 허용하되 호구화상으로 선수들의 건강보호에 신경을 쓰고있는 태권도가 현재로서는 무도의 박력과 근대스포츠의 요건인 건강보호를 가장 잘 조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선수들의 건강보호문제로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긴해도 극진가라데의 인기가 대단한것만은 부

인할 수 없다. 어쩌면 선수들의 건강보호문제로 크게 신경을 쓰지않는 실전경기방식이 바로 인기의 근원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대회 마지막날인 11월 4일에는 경기장인 도요코체육관이 생김이래 가장 많은 1만 5천명의 관중들이 밀려들어 함께 취재갔던 스포츠서울의 장사국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성진기자 등을 놀라게 만들었다. 입장료도 꽤 비싸, 3일동안의 통용권은 매트사이드가 5만원(우리나라돈 약 29만원) 인데도 지난 8월 12일에 예매를 시작하자 한달만에 매진 되고 말았다. 사흘동안의 대회기간중, 경기장의 문을 열기전부터 개장시간을 기다리는 관중들이 경기장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것도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대회운영과 경기방식을 소개한다면 경기는 큰북을 울리므로써 시작된다. 경기가 끝날때도 역시 큰북을 울린다.

경기에 열중하다 보면 선수들이나 주심이 경기종료를 알리는 큰북소리를 못들을 경우에 대비, 붉은 주머니를 경기장안에 던져넣는다. 그러면 설사 경기종료의 북소리를 못들었을 경우라도 붉은 주머니가 날아들어 온것을 보고 경기를 그치게 된다. 심판은 5명으로 주심 1명, 부심4명으로 구성된다.

극진가라데의 심판판정은 근소차의 판정승은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앞뿔뿔한 경기는 반드시 연장전을 치른다. 연장전은 두번까지 치를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두차례의 연장전끝에도 승패가

인간의 힘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황소뿔을 맨손으로 꺾고 차돌을 깨며
 세계를 돌며 각국의 격투기선수들과 겨룬 최영의총재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 그가
 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난다면 과연 누가 그뒤를 이어
 극진가라데를 이끌고 나갈것인지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있다.

가려지지 않을 경우는 두선수의 체중을 달아, 체중차가 10kg이상일때는 가벼운 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그러나 체중차가 10kg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격파실적에 따라 승패가 가려진다. 수도, 정권, 팔꿈치, 족도의 4가지로 각각 격파한 나무판의 장수를 따진다. 극진가라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순발력, 지구력 등 체력강화를 강조한다. 『기술은 힘안에 있다』는 것이 최영의총재의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승단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1급에서 초단으로 올라가자면 다음 규정을 채워야 한다.

▲가라데에 있어서의 인체의 명칭, 가라데의 정의, 이론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할것.

▲평안 1~5를 비롯, 정해진 5가지 품새를 마스터 할것.

▲자기 몸무게만치의 중량을 자기 나이의 수만큼 들어 올릴것(단 35살 미만인 자)

▲세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30번 이상 할 수 있을 것.

▲8분 두개의 판자 3장 이상을 수도, 정권으로 깎 수 있을 것. 차기도 마찬가지.

▲5명 이상을 가로 나란히 굽히게 하고 그위로 옆 차기를 할 수 있을 것.

▲10명과 잇따라 대련해서 5명 이상에게 완승할

것.

이상의 승단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극진가라데는 체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훈련프로그램에는 꼭 심폐기능을 단련시켜 지구력을 키우는 장거리 달리기가 들어가 있다.

192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최영의총재는 어릴때 일본으로 건너가 뒷날 제일거류민단 단장을 지낸 조영주씨 등에게 가라데를 배워 제2차대전 이 끝난 뒤 최초로 열린 일본가라데도전선수권대회(47년, 교오도)에서 우승을 차지한뒤, 상대방 몸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종래의 가라데에 회의를 느끼고 실전가라데인 극진가라데를 탄생시킨다.

한국계가라데군단이라 불리는 극진가라데는 최영의 총재를 정점으로 안영치 조일삼 조태언 김정차 노초용(제1회세계선수권 준우승자) 허박문 문장규(제5회세계선수권 우승자)등 많은 한국인 및 한국계 고단자들을 배출해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황소뿔을 맨손으로 꺾고 차돌을 깨며 세계를 돌며 각국의 격투기선수들과 겨룬 최영의총재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 그가 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난다면 과연 누가 그뒤를 이어 극진가라데를 이끌고 나갈것인지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있다. **태권**



컴퓨터시리즈 IV

태권도장에서의 컴퓨터의 활용(Ⅱ)

지난 가을호에서 도장에서의 컴퓨터의 활용이란 제목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 했다. 많은 관장님들의 문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더 하고 전체적인 관리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하고자 한다. 원래 이번호에서는 집에서의 컴퓨터 활용(PC통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로 했으나 위에서 언급 했듯이 많은 관장님들이 도장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것이 많아 좀더 소개를 하기로 하겠다.

관장님들의 공통된 문의 내용은

1. 컴퓨터의 구입
2. 컴퓨터의 운용 문제(교육문제)
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도장 업무의 범위

등이 가장 많았다. 이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4회에 걸쳐 소개를 했으므로 개괄적인 소개만 하기로 하겠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컴퓨터는 무엇 이든지 할수 있는 만능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싶다.

많은 관장님들이 이렇게 문의를 한다.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것을 처리해 주느냐고, 이러한 문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처 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컴퓨터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컴퓨터가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하는 지시는 사용자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란 것을 말하고 싶다.

일상적으로 집이나 도장에서 사용하는데 갖추어야할 주변기기 및 옵션은 다음과 같으면 무난 하리라 본다.

1. 몸통은 IBM-PC 계열 16비트 286(이상)
2. HARD DISK는 40MB(이상)

“

언젠가도 말했지만 컴퓨터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만능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있다.

”

3. 기본메모리는 1MB 이상
4. 플로피 디스크 1.2MB(5 1/4)INCH 1개(2개면 더욱좋고)
5. 14인치 모노크롬 모니터
6. 101 키보드
7. 한글 카드는 완성형 카드(옵니 한글카드:다른 것을 써도됨)
8. 24핀 80 칼럼(양방향 인쇄)
9. 모델은 2400MNP(내장형및 외장형중 선택)

위의 모든것을 합한 금액은 약 110 만원대 정도이다.

다음은 컴퓨터의 운용에 대해서 소개 하겠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OS(Operating System)을 알아야 한다. 즉 DOS를 이해해야 하는데 DOS란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의 통신수단 즉 언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약 100여가지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여가지만 알면 도장이거나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또 이러한 DOS를 공부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하루 한시간씩 약 2주 정도면 무난하리라고 본다. 학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2개월 과정 중 DOS와 워드프로세서의 사용법을 동시에 일러 주는 교육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떤 관장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남들보다 먼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

이 3년전에 컴퓨터를 처음 들여 왔을때는 지금 처럼 컴퓨터가 흔하지도 않았고 또 쓴 것도 아니었다. 3년전 38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해와 향후 도장에서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할 계획이었다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했을때 주위의 모든 사람 특히 본인의 처까지도 나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많은 관장님들의 문의를 받으면 난 그때의 상황을 예로 들곤 한다.

더 재미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본인이 DOS를 처음 배울 때의 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3년전에는 지금 처럼 16비트를 교육할 수 있는 학원이 거의 없었다. 여러곳을 문의해서 그것도 밤 늦은 시각에 그당시 수강료로 월 10만원씩 내고 6개월 과정을 공부 했다. 거의 교육과정이 끝나갈 무렵의 일이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11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난 좀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시간이 끝났고 또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귀가하려고 했다. 난 그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일러 주기 전까지는 귀가 할 수 없다라고 문에 버텨서 있으니까 느닷없이 선생님이 내 뺨을 후려쳤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별이 번쩍 하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는 순간 재차 올라오는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난 내 막내 동생뻘도 되지 않는 당신에게 이수모를 겪지만 난 감사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나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

든 오늘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일러 주기 전에는 귀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그날밤 1시 30분까지 수업을 해본 경험도 있다. 그 선생님께서로부터 그 이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하튼 모든 관장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코 컴퓨터란 것을 사용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시간이 없어서 배워 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왜냐 하면 현재의 사회가 요구 하는 것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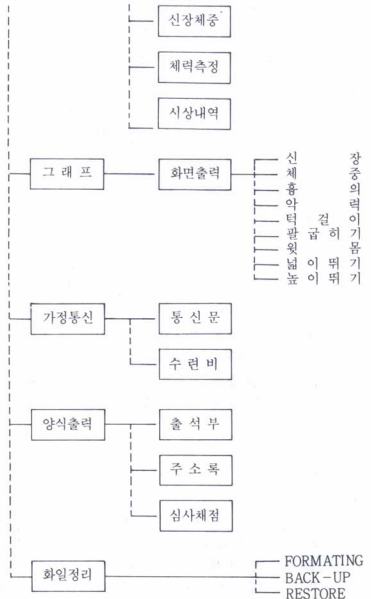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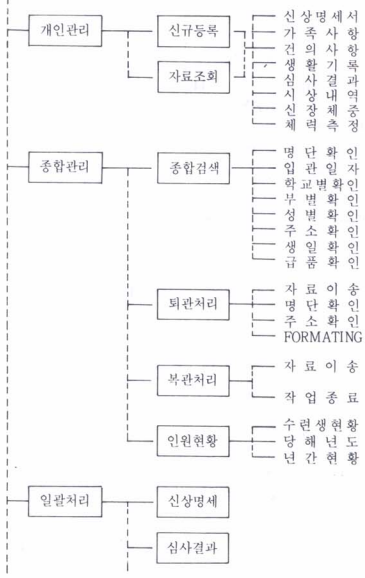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도장의 업무는 재무

관리로부터 수련생 개인의 모든 것을 처리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날 종이에 써서 기록하고 또 각종 자료를 분류하고 보관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는 간단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분류 보관 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의 것일 수도 있고 전체의 자료일 수도 있다. 일상적인 사용 방법은 지난 가을호를 참고 하기 바란다.

다음 도표는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표화 해 본것이다.

위의 도표에 있는 항목이외에 수련비를 관리 할 수 있는 가계부 프로그램이 있고 워드프로세서를

수련생관리



6월 수련 계획표

부\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유 급 자						1 휴 무	2 휴 무
유 품 자						휴 무	휴 무
유 급 자	3 · 기본동작, 폼세 · 기본 발차기 · 팔굽혀 펴기	4 · 기본동작, 폼세 · 미트차기 · 턱 걸 이	5 체력 측정	6 휴 무	7 학교 체육	8 휴 무	9 휴 무
유 품 자	· 왕복발차기 · 순 발 력 · 넓이 뛰기	· 응용 발차기 · 유 연 성 · 팔굽혀 펴기	체력 측정	휴 무	· 호 신 술 · 근 지구력 · 윗몸 일으키기	휴 무	휴 무
유 급 자	10 학교 체육	11 · 기본동작, 폼세 · 약속 겨루기 · 넓이 뛰기	12 체력 측정	13 · 기본동작, 폼세 · 자유 겨루기 · 팔굽혀 펴기	14 · 기본동작, 폼세 · 기본 발차기 · 턱걸이	15 휴 무	16 휴 무
유 품 자	· 호 신 술 · 근 지구력 · 윗몸 일으키기	학교 체육	체력 측정	· 시범 발차기 · 전신 지구력 · 넓이 뛰기	· 약속 겨루기 · 스 피 드 · 윗몸 일으키기	휴 무	휴 무
유 급 자	17 · 기본동작, 폼세 · 미트 차기 · 윗몸 일으키기	18 · 기본동작, 폼세 · 미트 겨루기 · 넓이 뛰기	19 체력 측정	20 심사 연습	21 예비 심사	22 제 84 회 승 급 심 사	23 휴 무
유 품 자	· 기본동작, 폼세 · 순 발 력 · 턱 걸 이	· 스텝, 미트차기 · 유 연 성 · 윗몸 일으키기	체력 측정	심사 연습	예비 심사		휴 무
유 급 자	24 게 임	25 · 기본동작, 폼세 · 약속 겨루기 · 팔 굽혀 펴기	26 체력 측정 및 신체 검사	27 · 기본동작, 폼세 · 자유 겨루기 · 턱 걸 이	28 · 기본동작, 폼세 · 기본 발차기 · 윗몸 일으키기	29 휴 무	30 휴 무
유 품 자	· 왕복 발차기 · 민첩 성 · 넓이 뛰기	· 응용 발차기 · 근 지구력 · 팔 굽혀펴기	체력 측정 및 신체 검사	· 자유 겨루기 · 전신 지구력 · 턱 걸 이	· 호 신 술 · 스 피 드 · 윗몸 일으키기	휴 무	휴 무

주간 수련 계획표

제 1 주

5.12-5.26

부\요일	월(3)	화(4)	수(5)	목(6)	금(7)	토(8)
유 급 자	· 준비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A 및 발차기 B: 1-3 · 품세 1장-8장 · 기본 발차기 · 체력훈련: 팔굽혀 펴기	· 기본 동작 및 요가 · 기본동작 A 및 발차기 B: 4-6 · 품세 1장-8장 · 미트차기 1-4 · 체력훈련: 턱걸이	체력 측정	현충일 휴무	학 교 체 육 · 줄넘기 · 뽀름 틀 · 메트 구르기 · 핸드 스프링 · 물구나무서기	휴 무
유 품 자	· 준비 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A: 75-78 B: 1-1-4 · 품세: 2,4,6,8 고려 금강 태백 · 왕복 발차기 1-7 · 순발력: 무릎가슴 닿기 · 체력훈련: 넓이 뛰기	· 준비 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A: 79-82 B: 2-1-4 · 품세: 1,3,5,7 고려 금강 태백 · 응용 발차기 1-7 · 유연성: 구르기 · 체력훈련: 팔 굽혀 펴기	체력 측정 1. 턱 걸 이 2. 윗몸일으키기 3. 팔굽혀 펴기 4. 넓 이 뛰기 5. 높 이 뛰기	현충일 휴무	· 준비 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A: 83-86 B: 1-1-4 · 품세: 1,3,5,7 고려 금강 태백 · 호 신 술 290P · 근지구력: 꼬르륵 뛰기 · 체력훈련: 윗몸일으키기	휴 무
중 고 일 반	· 준비 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및 발차기 · 품세 · 왕복 발차기 1-7 · 자유 겨루기 3분씩 · 기능보강: 꼬르륵뛰기 · 물장구 치기 200회	· 준비 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및 발차기 · 품세 · 응용 발차기 1-7 · 자유 겨루기 3분씩 · 기능보강: 물구나무서기 · 다리밀기 50회	체력 훈련 (PT 체조)	현충일 휴무	· 준비 운동 및 요가 · 기본동작 및 기본발차기 · 품세 · 호신술 · 자유 겨루기 3분 · 기능보강: 무릎가슴닿기 · 물장구 치기 200회	휴 무
비 고	· 현충일에 대한 정신교육은 각부 공히 5일날 10분씩 실시 한다					

이용한 각종 통신문 작성 및 도장회보, 수련계획안, 정신교육자료의 작성 등이 있다. 실제로 본 도장의 월간 수련계획 및 주간 수련계획표를 소개 해 보겠다.

이상으로 지난 가을호에 이어 도장에서의 컴퓨

터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다음호에서는 가정에서의 활용 특히 MODEM을 이용한 PC-통신에 대해서 소개 하겠다.

관심 있으신 관장님들의 연락 바란다. **태권**

(415-4906, 422-3506)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때
지자체는 뿌리를 내리게 될 것”

경기도 광역의회 홍남용의원

의원 당선자 홍남용 축

주최: 건우회

홍남용

- 1939년 경기도 의정부 출생 (53세)
- 태권도 6단 (1976.4.17)
- 성균관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
- 의정부중, 공교 동창회장.
- 의정부 태권도 저회장.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경향신문 의정부 제사장.



태권도 고단자 출신으로 경기도 광역의회의원인 홍남용씨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요즘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지난 7월 8일 광역의회가 개원된 이래 117명의 경기도의회의 원내총무격이라 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살림 맡으라 지역에 산재한 민원현장 시찰과 세미나 참석 등 하루하루의 일정이 꽉 차있다.

바쁜 와중에 지난 9월 28일에는 제 20회 회장배겸 9.28수복기념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신인선수를 발굴했다. 또한 11년째 계속해온 일본 니가타현 가라데협회와 의정부시간의 교환경기를 일본에서 가졌다.

홍남용의원은 현재 경기도협회 의정부지회장으로 지난 10여년간 재임해왔다.

“여러가지 일을 맡게되어 바쁘다고 태권도회장자리를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해온 태권도인이라 미려하나마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커다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작은 도시의 회장자리를 그가 바쁜 와중에도 지키고 있는 이유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홍남용의원이 태권도를 배운 것은 자유당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유단자가 되었고 이후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면서 도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의정부에는 강덕원이 태권도장 문을 열고 태권도의 뿌리를 내려나갔습니다. 당시 태권도를 함께 수련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인 이금홍씨와 현재 한일은행 영업이사로 있는 이관우씨 등이 있습니다.”

홍의원은 1968년도부터 의정부태권도 협회의 부회장을 10여년이 넘도록 맡아오다가 80년도에 회장으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의정부 터줏대감이다.

이렇게 태권도인으로서 열심히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홍의원이 광역의회에 나가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지방의회가 실시된다고 하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지역대표로 나가 일해보라며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년소녀 가장돕기나 재소자 교화협의회일 등을 통해 적으나마 사

홍의원은 1968년도부터 의정부태권도 협회의 부회장을 10여년이 넘도록 맡아오다가 80년도에 회장으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의정부 터줏대감이다.



회봉사 활동을 해왔는데 주위분들이 아시고 이왕이면 이웃봉사에서 지역전체를 위해 앞장서서 일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광역의회에 나아가게 되었다.

선거에 있어서 불법, 타락선거에 대한 비판이 높은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그는 “주위사람들이 선거운동원이 되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돈만뿐 안들이고 선거를 치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밀어주신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저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밝힌다.

덧붙여 쓰고 싶어도 가진 재산이 없었다는 그는 부인이 캔터키치킨집을 운영해 집안살림을 맡아준 것이 자신이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며 고생한 부인에게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선거를 치룬 그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기

잔치분위기로 지방의회 선거가 치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환경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 지자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편익을 가까이서 신속히 전달하는데 있다

역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의회 선거일이 6월 20일이었으니 한참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홍의원.

“학교 선후배와 태권도 선수배들이 자원봉사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다 보면 온 몸에 소금이 배어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다세

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돌며 인사를 다닐 때는 다리가 후들 후들 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을 태권도 수련으로 단련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체력전을 힘들게 한 요인중에 하나는 그렇게 땀이나는데도 긴와이셔츠에 정장을 입고 인사를 해야 기본이 돼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옷을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인 것들 때문이기도 했단다.

그는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고 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실시된후 의원의 자질, 일부의원의 부조리 그리고 주민의 의원에 대한 냉담한 반응과 낮은 참여도 등으로 지방의회가 진정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의아심을 가진 국민의 시선이 따라왔다.

몇달째 현장에서 뛰면서 일해온 그는 “30년만에 국민의 여망 속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습니다. 잔치분위기로 지방의회 선거가 치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환경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의 자질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곤합니다만 하루 아침에 지방의회가 제몫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자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편익을 가까이서 신속히 전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제는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단란한 가정,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여자형사기동대 3반장 지경순씨



91112

“

여자
형사기동대원들
모두가 태권도나
유도 검도 등
무술의 유단자

”



국기원에서▶

지경순

- 서울시 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 경장
- 1961년생
- 태권도 5단
- 한양여고졸업, 생명여대 중퇴

경찰청 정문을 들어서면 꼭 아세운 화강암위에 새겨진 글이 걸음을 멈추게 한다.

“민주국가에서 경찰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단란한 가정,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경찰청에서 만난 여자형사기동대의 지경순경장은 여느 경찰들과는 달리 제복을 입지 않은 모습이다. 170센치의 훗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아름답게 치장한 그녀는 경찰이라기 보다는 흡사 텔런트를 마주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여자형사기동대가 발족된 것

은 지난 9월 10일.

홍영화대장을 비롯해 총21명의 형사기동대는 5명씩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경순씨는 3반장.

요즘 그녀는 눈코 뜰 새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자형사기동대는 보통 아침9시에 조회를 시작한후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 맡은 현장으로 투입된다. 그리고 오후5시에 다시 모여 저녁모임을 갖고 다시 밤11시까지 외근을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자형사기동대의 발족후 보통 사흘에 한번씩은

밤샘근무를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여성 범죄의 온상에 대해서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여자형사기동대는 날로 급증하는 여성 범죄의 척결을 위해 발족된 만큼 그만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뛰어 다녀 모두들 살이 빠졌습니다.”

지경순씨는 지난 3개월 동안에 별의별 세상을 다 구경(?)했다고 한다.

“그동안 여자들이 사우나 등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다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남자형사들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자형사기동대에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강남의 여러 유명 호화 사우나에 잠복근무를 하여 도박판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인체에 해로운 한약을 살 빼는 약이라며 팔아온 한약방을 단속하기도 했다.

“여자형사기동대에서 한약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진찰을 받고 받아가지고 나온 살 빼는 약을 조사해본 결과 일시적으로 식욕을 떨어뜨려 살을 빼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복용시 뼈속에 들어있는 진을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니다.”

한편 그녀가 놀란 것은 살 빼는 약을 구하려 오는 여성이 의외로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분야를 뛰어 다니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갖게되고 보람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사회의 여러가지 병리현상을 접하게 되면서 차라리 모르고 안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순간 순간 느끼는 삶에 대한 비애감이 지경순씨가 여자형사기동대로서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그동안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접하였

“
여성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없애기위해서.

“
습니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정신, 건강한 마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사건현장에 갈 때는 아무리 여자형사기동대원들 모두가 태권도나 유도 검도 등 무술의 유단자라고 해도 겁이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라고 왜 겁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기꺼이 나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현장에 달려가곤 합니다. 저는 요즘도 아침 일찍 나와 경찰청 상무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곤 합니다. 언제든지 강한 마음과 몸으로 제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순씨가 태권도를 수련한 것은 벌써 20년이나 된다. 현재 5단의 고단자이자 국제심판이기도 하다.

학창시절에는 태권도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1976년도에 개최된 제7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개

인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1978년도에 개최된 같은 대회에서 3위, 같은해 협회장기대회에서 준우승, 1982년도에 제1회 국제한중여자태권도대표선발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태권도를 처음 배운 것은 10살때였습니다. 오빠가 도장을 다녀 저도 따라 나가게된 것입니다. 그후 오빠는 중간에 그만두었고 제가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수련한 인연으로 상명여대에 재학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한번 있었던 여자경찰관 특채 때 선발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당분간 휴학을 하자는 생각에 응시했던 것인데 막상 경찰이 되고 보니 여자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지만 이길을 선택한 것이 잘했다고 봅니다.”

지경순씨는 앞으로 많은 후배 태권도인들에게도 사회에 봉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배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까지 보여주었다.

끝으로 그녀는 여자형사기동대로서 여성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없애기위해서, (여자형사기동대 720-3194, 738-8080)

墨香

陽氣發處 金石亦透 精神一到 何事不成

의지가 강하며
굳게 참고 버티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朱熹句)



舊石 金昌東

약력

- 1947년 전남 구례출생
- 先考(顧堂公)사사
- 국전 제18,21,22,23,24,26,27,28,29,30회 입선
- 1982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 1983년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1985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1987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1987년 제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海公 申翼熙先生 記念 碑文
- 梅軒 尹奉吉 義士 記念碑文
- 瑞興君 神道碑
- 상명여대 · 경기대 서예 지도강사 역임
- 동아일보 · 한국일보 문화센터 서예지도강사
- 한국미술협회회원

휴전선 태권도소녀 이 명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태권도 가족 성금 1천2백여만원 전달



◀ 지난 12월 21일 이명순어린이가 방학을 맞는날 협회 강원식전무이사는 전국의 태권도가족으로부터 모은 성금을 마현국민학교에 전달했다. (왼쪽 강원식전무, 가운데 문병준교장, 오른쪽 이양의 아버지 이수성씨)

휴전선 남방 3Km 민통선내 산간오지에 있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국민학교 6학년 이명순(12세) 어린이가 백혈병에 걸려 입원했으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는 사연을 접한 뒤 태권도계에서는 전국 시도지부와 3개연맹 등 전국의 태권도 가족으로부터 성금을 모금, 1차 모금액 1천여만원을 지난 12월 21일 마현국민학교에 전달했다.

신미년 세밑을 맞아 대한태권도 협회는 태권도 소녀 이명순어린이를 살리기 위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이명순 어린이는 100여가구가 웅기종기 모여사는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에 사는 마현국민학교 6학년생이다.

4년전, 마현국민학교에 사정옥선생님(태권도6단)이 부임해오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1시간동안 이명순 어린이를 비롯해 전교생 120여명이 태권도를 수련해 왔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도 전교생이 모두 허리에 품띠를 매고 휴전선 북쪽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태권도의 함성을 지르며 통일의 꿈을 키워왔다.

이명순 어린이는 지난 5월 19일 강원도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낸 바 있는 태권도 꿈나무.

이렇게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새벽하늘을 가르며 태권도 기합소리를 힘차게 외치던 이명순 어린이에게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내려진 것은 지난 7월 중순.

서울시협회에서는 지난 ▶
12월8일 국기원에서 열
린 송품 심사대회장에
서 이명순돌기 성금을
모금(사진)하는 한편
송년의 발행사에서도
성금을 모금했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이명순돌기 성금 모금
에 적극 참가해 태권도
가족의 따뜻한 온정을
보여주었다.



모금내역

	금 액
대한태권도협회	945,094
서울시협회	2,000,000
부산시협회	600,000
대구시협회	500,000
인천시협회	500,000
대전시협회	543,556
경기도협회	500,000
강원도협회	2,433,000
충북협회	500,000
충남협회	500,000
전북협회	504,910
경북협회	745,000
대학연맹	500,000
중고연맹	200,000
국교연맹	411,000
세계연맹	500,000
코치협의회	500,000
사범 5명	50,000
합계	12,433,000

*91년 12월말현재

1주일에 1백 5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2천여 만원에 달한다는 골수이식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을 생명이 꺼져간다는 딱한 소식을 접한 것이 지난 12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는 우리 태권도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태권도소년 이명순 어린이를 살리기위해 바로 성금 모금 협조공문을 시도지부를 통해 전국의 3천500여도장에 전달했다.

전국시도협회에서는 송품단 심사대회장에서, 대회 경기장에서, 송년행사장에서 태권도가족의 정성을 모아 1000여만원의 성금을 협회로 보내왔다.

1차 모금액 1천만원이 이명순어린이에게 전달된것은 지난 12월 21일. 이명순어린이가 겨울 방학을 맞는 날이었다.

협회에서는 강원식 전무이사가 직접 마현국민학교를 찾아가 성금을 전달하고 이명순어린이의 아버지 이성수(51세)씨와 어머니 이상순(50세)씨를 위로했다.

이명순어린이는 현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지 않아 전국태권도 가족의 정성어린 손길로 새생명을 찾아 더욱 더 건강하게 태권도의 힘찬 기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태권**

대한태권도협회

제10회아시아태권도 선수권 대회 대표팀 파견

협회는 '92년도에 개최되는 첫 대회인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선수단 20여명을 파견한다.

아시아선수권대회는 1월 31일부터 2월2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한국 대표선수단 파견을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1차선발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최종선발전을 실시하고 남녀 남녀대표 8명씩 16명을 선발했다.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아시아 태권도인의 큰 잔치로 2년 마다 개최되는데 1974년도에 창설되어 지난 90년도에 9회 대회까지 개최된 본 대회에서 남자부는 9연패를 차지한 바있다.

여자부는 7회 대회인 1986년도부터 채택되어 7회와 8회대회 때는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나 1990년도에 개최된 9회대회 때는 중화대북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이란혁명기념 국제 태권도 대회 (5회)

92년 2월9일부터11일까지 테헤란에서

이란태권도협회는 92년 2월 9

일부터 11일까지 테헤란에서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0월 23일 초청장을 보내왔다.

협회에서는 매 대회마다 시도 대표팀을 출전시켜 왔는데 이번에도 지방팀을 출전시켜 지역태권도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역대 전적을 보면 88년도에 개최된 제1회 대회에는 대구시 대표팀이 참가해 종합 3위(금2, 은2, 동2), 2회대회에서는 부산시대표팀이 우승(금3, 은3, 동2), 3회대회에는 경희대학팀이 출전해 우승(금4, 은2)을 차지하였으며 91년도 대회때는 페르시아만 전쟁상태로 인한 선수단 신변안정을 위하여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에 경기용품 지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단은 대회를 마친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시를 방문하여 2차례에 걸쳐 태권도 시범경기를 펼친바 있다.

태권도의 불모지인 체코슬로바키아에 새롭게 태권도의 열풍을 불러일으킴으로써 ITF소속 회원 및 가라데 소속 회원들이 WTF로 전향토록 하는데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시범행사 기간 중 체코슬로바키아 가라데 연맹 회장이 태권도 전향의사를 밝혔으며 태

권도 경기용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몸통호구, 헤드기어, 살보호대, 매트 등을 지원했다.

연금수혜 2명 추가 양대승 세계선수권 3연패로 은장 승급

지난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서 김철호(현대자동차)선수과 장혁(한국체대)선수가 대회 2연패를 이룸으로써 연금수혜를 받게 됐다.

김철호 장혁 두선수는 89년 서울 9회 세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각각 플라이, 페더급에서 우승함으로써 연금수혜자(동장)로 추천되었다.

한편 8,9회 대회에 이어 라이트급에서 3연패를 이룩한 양대

승선수(조선맥주)는 동장에서 은장으로 승급되었다.

이로써 태권도 종목에서는 은장4명 동장14명등 총18명이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양대승 (1969년생)

91년 한국체대 졸

현재 조선맥주 근무

▲김철호(1967년생)

90년 한국체대 졸

현재 현대자동차(주) 근무

대한태권도협회 '92년도 사업계획(안)

월	일	사	업	명	장	소	주	관
1	28-2·2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말	레 이 지 아	대한태권도협회	
2	9-11	제 5회 여명의 열흘 이란 혁명기념국제대회			이	란	"	
	18-19	경기 규칙 강습회			국	기	원	"
3	3-4	상임 심판원 교육			"		"	
	10-12	제25회 올림픽파견 국가대표선발전			"		"	
4	6-10	'92년도 전국종별선수권(고등부)			"		"	
	14-16	'92년도 전국종별선수권 (중등부, 일반부)			"		"	
	22-24	제19회 대학연맹 개인전			"		대 학 연 맹	
5	1-3	제 2회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장기			"		체 과 대	
	13-14	'92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			"		대한태권도협회	
	25-30	제19회 중고연맹 회장기			잠실학생체육관		중 고 연 맹	
6		제 회 소년체육대회			미	정	대한태권도협회	
	12-15	제27회 대통령기 단체전			"		"	
	25-27	제 4회 경희대학교 총장배			국	기	원	경 희 대
7	20-22	제16회 연세대학교 총장배			연	대	체 육 관	연 세 대
8	16-23	제 3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잠실학생체육관		중 고 연 맹	
10	10-16	제73회 전국체육대회			대	구	대한태권도협회	
	23-24	제15회 대학연맹 회장기			국	기	원	대 학 연 맹
11	11-13	'92년도 우수선수 선발전			"		대한태권도협회	
12	9-11	제 1회 협회장기 품새 및 시범경연대회			"		"	
	15-18	'9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		"	

태권도 소식

▲장혁(1969년생)
현재 한국체대 4년(졸업예정)

서울특별시협회

91년도 심사 대회 마감

서울시 협회는 91년 12월 8일 제 366회 승품심사 대회를 끝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91년도에는 승품심사대회 21회 실시(연인원 36,765명), 승단심사대회 6회 실시(연인원 6,892명), 고단자 심사 대회4회 실시(연인원 444명)하여 총 인원 44,101명이 참가하여 전년도에 비해('90년도 41,023) 3,078명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시킨 가운데 심사대회 사업을 모두 마감하였다.

각 구청장기 대회 개최

서울 시내 각 구에서는 체육관 수련생을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지역 사회 태권도 활성화와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 아울러 체육관 사범들의 일선도모와 화합단결에 일조를 하였다.

지난 10월 20일 양천구 금육여고 체육관에서는 양천구 서정복 사범이 주축이 되어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500여명의 어린 선수들이 참가 제3회 양천구 청장기 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모범적으로 치렀다.

지역의 국회의원, 기관장, 광역 기초 의회의원들도 대거 참석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해 냈다.

또한 11월 3일에는 제3회 영등포구청장기 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300여명이 참가 관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같은날 제1회 중랑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3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대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7회 종로, 중구, 친선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 하였다.

중·고·대 진학 장학금 435만원 지급

금년도 서울시 주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그간 장학금 지급을 받지 못한 입상 선수들 중에서 각급 학교에서 체급별 1명씩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국교부 10만원씩, 중등부 15만원씩, 고등부 20만원씩 합계 435만원을 지급.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수혜대상자 명단

▲국민학교
김정환(은로국), 손호형(쌍문국), 서태완(면목국), 고성만(광희국), 장세용(거여국), 이현수(신우국), 송경호(남천국), 정현민(봉천국), 정성준(강덕국), 서기풍(보광국), 박기보(백석국)

▲중등부

한기면(경수중), 조만희(동성중), 손민호(배명중), 장봉호(오류중), 강성권(체육중), 조일완(공릉중), 진천수(한영중), 정승진(쌍문중), 김한동(동북중), 방효성(자양중), 강 훈(한성중)

▲고등부

장대순(동성고), 박병준(리라공고), 이동수(관악고), 최진철(성동고), 김재균(한성고), 이규동(광영고), 은재기(한양공고), 서정규(송곡고)

제10회 서울시장기 초, 중, 고, 대, 일반부 단체전 및 개인 선수권대회 개최

서울시 협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초, 중, 고, 대, 일반부 선수 6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장기 타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

다. 서울시 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각 부별 우수선수 2명에게는 서울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국교부 우수선수 2명에게는 각 20만원, 중등부 우수선수 2명에게 각 25만원, 고등부 우수선수 2명에게 각 30만원, 대학부 우수선수 2명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각 부별 단체 우승은 국교부 강덕국교, 중등부 동성중, 고등부 리라공고, 대학부 한국체대, 일반부 체육 선교 신학교가 차지 하였다.

장학금 지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선수명단)

▲국교부

윤다함(강덕국교 · 20만원)

이근호(금천국교 · 20만원)

▲중등부

정대영(동성고 · 25만원)

황병련(경수중 · 25만원)

▲고등부

김길곤(리라공고 · 30만원)

임성수(관악고 · 30만원)

▲대학부

박종범(한국체대 · 40만원)

민태남 : (한국체대 · 40만원)

〈서울 박노규 · 김종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제16회 교육감기 대회 개최

부산직할시협회에서는 지난 9월에 구덕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부산직할시 교육감기 개인 및 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날 중등부경기에서 라이트 웰터급의 김정수(개성중)는 김성철(영남중)을 2: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김효성(영남중)을 맞아 뒤차기 등을 성공 시키며 3: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2일째 고등부경기 중에서는 부산체고가 미들급의 신원조, 해비급의 표성봉 등이 금메달을 차지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체육고등학교로서의 면목을 과시했다.

한편 동천고는 편급에 최태림, 페더급에 박성수 등이 각기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



태권도 소식

량을 보여주며 부산체고에 이어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단체성적을 보면 중등부가 1위 개성중, 2위 항도중, 3위 영남중, 고등부는 1위 부산체고, 2위 동천고, 3위 금정고

체급별 우승자명단은 중등부가 문정훈(항도중) 성지훈(해동중) 김태근(항도중) 원형진(개성중) 명길규(개성중) 김정수(개성중) 심정욱(반송중) 전유곤(금사중) 구중모(항도중) 송호진(개성중) 김도길(해동중), 고등부는 최태림(동천고) 김현주(금정고) 김영길(금정고) 박성수(동천고) 이상훈(부산체고) 김남석(금정고) 신원조(부산체고) 표성봉(부산체고)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직할시협회는 지난 10월 20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제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는 총 2,015명이 응시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직할시협회

7개지부 친선 체육대회

대구직할시협회는 지난 9월 7일 경상공업고등학교강당에서 7개 지부별 도장관장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제5회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 7개지부 친선대회에는 200여개 도장 관장들이 모여 축구, 배구, 릴레이 등의 경기를 펼쳤다. 특히 50대 이상의 원로 태권도인들이 참가한 달리기 대회는 태권도인들의 친선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한자리가 되었다.

이번대회에서는 동대구지부(회장 임규용)가 우승, 2위 남대구지부(회장 이영호), 3위 달서구지부(회장 최정승)가 차지했다.

학도 체육대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태권도인들의 겨루기 시합인 학도체육대회가 10월 30일 대구체



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초등부에 150명, 중등부 90명, 고등부 35명이 참가해 학교간의 기량을 겨룬 이번대회의 종합 성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1위 침산국민학교, 2위 평리국민학교, 3위 신천국민학교

▲중등부 1위 경일중학교, 2위 칠곡중학교, 3위 동중학교

▲고등부 1위 오성고등학교, 2위 경상공업고등학교,

우수선수권대회 회장 대회

대구직할시협회는 지난 11월 12일 대구체육관에서 1991년도 우수선수권대회 겸 고등부 제6회 시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고등부 시장기대회의 우승기는 경상공업고등학교가 차지했으며 부별 우승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교부 : 박석환(수창국교) 윤성원(수창국교) 윤재철(동문국교) 정남식(평리국교) 이태형(평리국교) 강병진(평리국교) 장석희(평리국교) 강전길(수창국교) 이종관(수창국교) 배영(수창국교) 김승배(평리국교)

▲중등부 : 이준철(오성중) 류연학(경일중) 윤상필(경일중) 김미철(경일중) 우정근(경일중) 이준건(오성중) 이종혁(경일중) 한용명(경일중) 김연호(경일중) 김필용(오성중) 전홍식(경일중)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광주직할시협회

12월중 2차례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731명의 합격자 배출

광주직할시협회는 12월중에 2차례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해 1차에 615명, 2차에 1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2월1일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실시된 승품단 심사에는 1품263명, 2품114명, 3품31명, 1단122명, 2단50명, 3단24명, 4단8명, 5단3명 등 총615명이 합격했다.

12월14일 상무중학교 태권도부와 전남대학교ROTC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체육관에서 실시한 승품단 심사에는 1품57명, 1단57명, 2단1명, 3단 1명 등 총 116명이 합격했다.

<광주 윤운석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도지사기 시군대학대회 부여군 종합우승 차지

충남협회에서는 지난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태안여자 상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도지사기 시군대학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충남의 유품유단자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는 국교부 117명, 중등부 112명, 고등부 145명, 일반부 47명, 여자부 30명 등 총

451명이 참가했다.

이번대회는 개인전에 의한 단체경기방식으로 진행되어 부여군이 종합우승, 태안군이 준우승, 천안시가 3위를 차지했다. 부별성적을 보면

▲국교부 1위 부여군, 2위 연기군, 3위 보령군

▲중등부 1위 태안군, 2위 부여군, 3위 대천시

▲고등부 1위 서산군, 2위 태안군, 3위 대천시

▲일반부 1위 부여군, 2위 태안군, 3위 서천군

▲여자부 1위 천안시, 2위 부여군, 3위 천안군이 차지했다.

한편 시상식에서 충남협회가 중흥회장은 태권도발전에 기여한 노인국(벽사개발대표)씨에게 감사패를 정지근(방포체육관장), 김형중(부여용비체육관장), 김봉환(천안주공체육관장)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김상호충남협회경기위원장에게는 충청남도지사의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4차 승품단 심사대회 총1384명 합격

충남협회에서는 지난 12월8일 대전학생체육관과 단국대학교 학생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했다.

대천에서 있는 4차 승품단심사대회에는 1,2,3품에 674명, 1,2,3,4,5단에 610명 등 총 1284명이 합격하였다.

태권도 소식

또한 단국대학교체육관에서 개최된 천안지역출장 승품단심사 대회에서는 1품에 2명 1,2,3,4단에 98명 등 총 100명이 합격했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11·12월중 승품단 심사 대회 실시 총 1127명 합격

전남협회에서는 지난 11월24일 전남체육관내 태권도훈련장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68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는 1품234명, 2품76명, 3품12명, 1단215명, 2단101명, 3단36명, 4단8명, 5단 3명이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여수수산대학실내체육관에서 동부지부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해 44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1품

에 175명, 2품85명, 3품17명, 1단92명, 2단46명, 3단23명, 4단2명, 5단 2명이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전라북도협회

제28회 회장기 단체대항전 및 종별선수권대회 개최

전북협회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회장기 단체대항전 및 종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부별 종합우승은 성송국민학교, 군산중앙중학교, 함열고등학교, 풍남여자중학교, 김제북고등학교, 부안체육관이 각각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국교부가 임태영(군산남국교) 김대현(성송국교) 심홍윤(군산동국교) 정재성(성송국교) 유경일(성송



국교부 우승을 차지한 고창 성송국민학교팀.

국교) 정진철(성송국교) 황길재(성송국교) 김길태(일대국교) 정남교(홍덕국교) 이순영(동신국교) 김현호(송광국교), 중등부는 박종선(군산중앙중) 임태경(완산중) 문형효(완산중) 광권열(중앙중) 최명수(군산중앙중) 노승주(군산중앙중) 오재화(함열중) 양정규(김제북중) 국춘근(완산중) 김옥진(남원용성중) 김구현(함열중), 고등부는 김정연(영선고) 박종현(고창고) 최병삼(함열고) 박성도(고창고) 손완식(장수고) 김무송(신태안중고) 강동성(신태안중고) 박노선(함열고), 여중부는 김현주(홍덕중) 김수현(홍덕중) 서수미(군산여중) 김보인(김제여중) 채영주(성내중) 김미라(계남중) 손은경(이리여중) 안근아(금성여중) 이진영(풍남여중) 박윤화(김제여중) 송광숙(풍남여중), 여고부는 김희성(김제북고) 은혜숙(김제상고) 황정은(고창여고) 정건순(김제상고) 강미자(부안여상) 양춘희(김제북고) 정미화(김제북고) 박정숙(김제북고), 일반부는 조광진(부안도장) 소장수(정인도장) 장경준(부안도장) 백정관(전주도장) 강준모(정인도장) 박봉인(정인도장) 박명식(부안도장) 이명철(전주상무체육관)

제5차 승품 및 승단대회

제5차 승품 및 승단대회가 총 1000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11월 3일 전주고등학교 체

태권도 협신
태권도인의 생활은 여기이다.
태권도인의 긍지는 여기이다.

전북태권도

전북 태 권 도 회 보
발행인 : 이 권 수
간행인 : 이 권 수
편집인 : 이 권 수
인쇄처 : 다 성 사
발행처 : 222-5488 (전북) 84-8829

제 1 호 1991년 11월 5일(화요일) (제14호) (제14호) (제14호)

(제14호) (제14호) (제14호)

전북 태권도인의 영광

— 제72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종합1위는 전북 —

투지와

전북 22

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전국체전의 바쁜 일정과 마무리 작업으로 제5차 심사대회는 예정일자보다 일주일 늦게 치루어진 것이다.

이번 심사는 질서정연한 가운데 치루어졌으나 실력미달인 수련생들이 적지 않아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단심사에서는 응심자들이 멋진 품새와 박진감 넘치는 겨루기를 보여줘 관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태권도회관 마련

강원도협회는 태권도인의 숙원이던 태권도회관을 마련, 지난 10월 26일 김성태회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의 축하속에 준공식을 가졌다.

태권도회관은 춘천시 근화동에 대지 2백54㎡에 연건평 4백71㎡ 3층 건물로 마련되었다.

강원도체육회 가맹단체로 자

태권도 소식

체화회를 갖기는 태권도협회가 처음이다.

강원도협회는 63년 협회 창립 때부터 회관 건립의 꿈을 키웠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77년 부터이다.

강원도협회는 연간예산을 최대로 절약, 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회장단, 이사들의 협찬금으로 지난해 대지를 구입해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14년째 강원도협회장을 맡아온 김성태회장은 「내년에는 합숙소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최찬영 편집위원)

제주도협회

제7회 회장배 전도대회

제7회 회장배 전도 태권도대회가 11월13일 제주시민회관에서 2백73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도 태권도 협회 정이수회장은 개회사에서 날로 발전해 가는 태권도는 경기이기 전에 무도임을 강조하면서 92년 대통령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기량을 높이고 타도에 못지 않는 경기 진행으로 제주 태권도의 면목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대회에서 관심을 모은 선수는 재일동포인 박철(재일 건국 소학교)이 초등부 웰터급에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재일본오사카거류민단장배 태권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철은 태권도 수련을 쌓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때면 고향 한림을 찾을 정도로 태권도 광이기도하다.

이번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고등부 플라이급 우승자인 김병석(남주고)이 차지했다. 부별단체 우승은 서귀중앙국, 남주중, 남주고, 호돌이체육관이 차지했다.

부별 우승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국민학교부 : 유정식(서귀중앙국) 이창훈(서귀중앙국) 김희섭(서귀국) 정명진(대정국) 김동언(제동국) 김정선(토평국) 서창우(서귀중앙국) 양재혁(삼성국) 오승협(토평국) 이원희(제북국) 고경민(대흥국)

▲중등부 : 황용길(남주중) 고희철(제주중) 조철주(남주중) 고대유(남주중) 김성철(오원중) 오용석(표선중) 강승철(대정중) 고동형(남주중) 이동욱(남주중) 김대훈(표선중)

▲고등부 : 김승윤(남주고) 김병석(남주고) 고태관(남주고) 서배홍(오원고) 이광진(남주고) 허정성(남주고) 오승태(남주고) 고봉진(남주고)

▲일반부 : 이창현(신촌체) 김훈건(신촌체) 양승관(호돌이체) 강동균(호돌이체) 김재현(신촌체) 이용범(애월체) 강운신(호돌이체) 최원국(호돌이체)

(여자부)

- ▲국민학교부 : 이정화(삼양국)
이명선(서귀서국) 양혜정(신
례국) 고은정(한림국) 김경아
(의귀국)
▲일반부 : 고성미(서귀여중) 김
용란(서귀여중) 강은주(귀일
중) 오선화(제주여중) 김현희
(신촌체) 홍영선(세화체) 허
애숙(신촌체) 윤덕희(강무체)
김효정(강무체)

진정우 '91제주도 체육상 최우수 선수

'91제주도 체육상 최우수 선
수로 전국체전 3연패를 기록한
진정우(상무)가 선정됐다.

또 최우수 단체상은 제주도태
권도협회에 돌아왔다.

많은 체육인들의 관심을 모았
던 최우수 선수상은 전국체전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로 정
한다는 제주도 체육회 상벌위원
회 규정에 따라 제72회 전국체
전서 금메달을 획득한 진정우가
뽑힌것. 진정우는 제70회, 71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승, 연속 3연패
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제주체
육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리고 최우수 단체상은 제
72회 전국체전서 금2, 은1, 동2
개를 획득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제주도태권도협회가 수
상하게 됐다.

- ▲제주도체육상수상자(태권도)
◇최우수 선수=진정우
◇최우수 단체=제주도 태권도
협회

- ◇지도상=강민호, 김동훈
◇경기상=성의천
◇우수선수=최원국, 김남경, 강
근배, 정명진, 이민
욱, 이재유, 이창훈
◇공로표창=진춘배
◇공로패=현봉석
◇감사패=정이수

'91 제주도 문화상 체육부문 문무용(태권도)씨 뽑혀

문무용 체육회이사는 37년간
태권도인 저변확대는 물론 선수
육성 및 지도자 양성에 대한 공
로로 제주도 문화상을 받게 되
었다

'92 제 27회 대통령기전국대 회 제주유치

제주도 태권도협회는 도내 선
수들의 기량향상과 태권도 활성
화를 위해 92년도에 개최될 제
27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신청서를 대한태권도협회
에 보냈다.

제주도 태권도협회는 제27회
대통령기 대회를 '92년 6월에 개
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로써 제주에선 지난 '86년
5월 제21회 대회에 이어 6년만
에 전국 규모대회가 열리게 되
는 것이다.

승품,단 심사대회

승품, 단 심사대회가 12월14일
서귀포시 세계 태권도장과 15일

제주 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심사에는 1품 2백50명,
2품 110명, 3품 20명, 1단 70명,
2단 20명, 3단 10명, 4단 2명, 5
단 1명 등 총 480여명이 참가
하였다.

〈제주 정한수 편집위원〉

국기원

165명의 지도자 배출 제 69기 사범교육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에서는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제 69기 사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에는 총 179명이 참
가했는데 이중 165명이 사범자
격을 획득했다.

수료식에서는 고웅수·정진영
·서원식·장하진·정태성·이
강현·박영택·정국현씨등 8명
이 국기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태권도 소식

국기원 '태권도기념관' 개관

국기원은 지난 '91년 11월30일 창립 19주년을 맞아 태권도의 역사문화공간인 태권도기념관을 개관했다.

태권도기념관은 전세계 1백20여개국에 보급된 태권도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한것.

50평규모의 작은 공간으로 출발하게됐지만 이 기념관에는 국기 태권도의 성장史를 입증하는 1천2백여점의 자료가 분류·전시되었다.

이중에는 태권도계간지 1백20점(국문75, 영문45)과 태권도 도서 80종, 태권도 관련 신문스

크랩북 40권 등 문헌자료와 주요 국제경기포스터 1백20개와 우승컵, 메달, 기념패 3백점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제대회를 비디오에 담은 영상자료만도 70점에 달한다.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태권도 기념관의 자료수집은 국기원 사무국이 전담했는데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및 IOC위원으로 국제스포츠계의 활약이 큰 김운용국기원장이 소장하고 있던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한다.



국기원 92년도 사업 계획

사업명	내용 및 기수	심사및교육일자	자격기준	제출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비 고
고단자 (6-9단) 승단심사 (4회)	1차	92. 3. 14(토)	*심사규정 제8	· 심사신청서 1부 (사진 3×2=2매)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사본불가) · 8,9단 응심자 이력서 1부추가제출 *심사일자 7일전 심사신청서 당원 제출 *폐심사자 필히 주민등록증 지참 응심하여야함.	
	2차	92. 6.20(토)	조에 의거한		
	3차	92. 9. 19(토)	승단연령 및		
	4차	92. 9. 19(토)	연한 경과		
지도자 교 육 (4회)	제 70 기	92. 2. 21 - 2. 29	*국민체육진흥 법시행령 제24	· 수강신청서 1부(사진 3×4=3매)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사본불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사본불가) *해당 시도협회장 추천 *교육개시일자 10일전 수강신청서 당원제출 *교육인원 150명 제한함. *사범지도 전일까지 불참 사유서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강료 반환하지 않음. *교육개시 전일까지 불참 사유서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강료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50,000
	제 71 기	92. 5. 6 - 5. 15	*단 20세이상		
	제 72 기	92. 9. 22 - 10. 1	자(일교일기준)		
	제 73 기	92. 11. 17 - 11.26	*4단증 교부된 자(신청증 미 교부자 불가)		
2급 경기지도 자 연수 (2회)	제 15 기	92. 5.25 - 6.13	*국민체육진흥 법시행령 제23조3항	· 지원서 1부(연수원 소정 양식) 사진 5×5=5매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사본불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불가) *교육개시일자 15일전 지원서 마감 당원 제출 *대태회장 추천서 필히 첨부 *교육인원 100명 선착순 접수 제한	
	제 16 기	92. 10. 20 - 11.11	해당자		
3급생활 체육지도 자 교육 (2회)	제 6 기	92. 7.8월 중 예정	*당원지도자 교육자격증 취득자	· 지원서 1부(사진 3×4=5매) · 지원서는 교육개시일 기준 15일전까지 당원 제출	수강료 ₩45,000
	제 7 기	92. 11. 12월 중 예정	*국민체육진흥 법시행령 제 24조4항 각호 의 해당 자격 을 갖춘 자		

제 5기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

12월 2일부터 7일까지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서는 태권도 3급
생활체육지도자교육이 실시되었
다.

국민의 생활체육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



태권도 소식

회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체육청소년부로 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국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교육에는 사범자격증을 갖고있는 태권도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총 178명이 수료했으며 수료식날에는 연수과정에서 모범을 보인 김기용·김태현·최완길·김영작·김익종·최진근·최규대·이원규

전재완 체육청소년부장관상 수상 제 14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교육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선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교육이 실시되어 126명이 수료했다.

연수원에서는 연수과정 수료자중 성적 우수자 및 모범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체육청소년부장관상: 전재완 (초원체육관사범)

▲대한체육회장상: 손재역 (한국체육대학조교)

▲연수원장상: 은용상 (체과대) 김화수 (육군) 이재진 (경희대)

▲연수원장 표창장: 진선중 (경희대) 전영훈 (체과대) 박병상 (체과대) 심재현 (산수체육과)

세계태권도연맹

92년 발칸반도대회에서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세계태권도연맹은 92년5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리는 발칸반도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발칸반도게임에 참여하는 국가는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등 모두 5개국인데 이들 국가들은 최근 그리스에서 열린 제9회 세계태권도대회에 출전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94년 미·소 국월게임 태권도 정식종목채택

태권도가 국월게임 정식종목에 채택됐다.

국월게임은 미·소양국간의 스포츠친선교류를 도모하는 대회로 매4년마다 양국의 도시를 순번제로 옮겨가며 개최된다. 태권도는 오는 94년7월 레닌그라드 제3회대회부터 들어간다.

제25회 국제심판세미나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제10회 남자 및 제3회 여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에 앞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그리스의 국제올림픽아카데미에서 국제심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11명의 심판이 강습회에 참가했는데 이중 10명이 국제심판자격을 획득했다.

국제심판 자격을 획득한 사람

은 김화룡, 송우길 · 이계승 · 장창영 · 김광조 · 이성우 · 권창현 · 최복현 · 최인수 · 심명구씨이다.

미 · 소 양국협회 합의 92년 2,4월 대표팀 교환경기

‘한국 태권도를 통해 미국과 소련이 화합을 다진다.’

미국태권도연맹과 소련태권도 협회는 최근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를 위해 태권도 선수단을 상호 파견하는데 합의, 사상 최초로 양국간의 태권도 교류가 실현되게 됐다.

현재 미국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상철씨(45)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소련태권도 협회의 이고르 S 소코로프회장과 체육부차관인 아나톨리 I 콜레소프씨를 만나 이같은 계획을 상의했으며, 최근 교환 경기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지난 89년 이래 미국태권도연맹의 승인하에 해외 교환경기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공산권과의 태권도 교류가 이루어진 것.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92년 2월 소련 태권도 대표팀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방문해 친선 경기를 벌이며 4월에는 미국

대표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된다.

내년 2월11일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제1회 US오픈 태권도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기간에 소련팀을 초청할 계획.

이총장은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무성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앞으로 태권도를 통한 공산권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 궁극적으로 미국대표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대표 남녀 각각 8명씩이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한인 교포선수가 한명 포함돼 있고 코치도 한인이다.

태권도는 동양의 격투기로는 유도와 함께 미국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42개 산하 단체에 포함돼 있으며, 한인 교포가 업무를 관장하는 유일한 단체다.

〈스포츠조선 1991년 9월 25일자에서〉

기 타

김 종설 · 김상복씨 1급경기지도자 자격획득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지난 1년간 실시한 1급 경기지도자연수 과정에 참가한 김종설씨(서울 효자체육관 관장), 김상복씨(경원대학교 교수)가 91년도 1급 경기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올해 1급경기지도자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태권도 2명을 포함해 10개종목에서 총 14명이다.



김종설씨



김상복씨

2급 사회(생활)체육지도자 8명 합격

태권도에서는 처음으로 2급

태권도 소식

사회체육지도자 8명이 탄생되었다.

2급 사회체육 지도자교육은 처음으로 태권도종목이 포함된 가운데 지난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되어 12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중 8명이 태권도 전공자.

3주간 144시간의 교양 및 체육일반교육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태권도인은 김종연, 신충현, 강문규, 박민택, 강창수, 염보선, 조정희, 홍성재씨 등 8명이다.

전국경찰무도대회 서울지방경찰청 우승

경찰의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경찰무도대회가 지난 10월 20일 인천 부평에 있는 경찰종합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치안청을 비롯



한 각지방경찰청 등 18개 시도팀이 참가해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종목 단체전과 개인전이 펼쳐졌다.

태권도경기에는 김윤근총경을 단장으로한 서울지방경찰청팀(감독 이택명)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는 동부서의 김영식순경이 우승, 1계급 특진(경장 진급)의 영광을 안았다.

그밖에 2위는 제주지방경찰청, 3위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차지했다.



제26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 공철국·유응표씨 최우수선 수상 수상

교도관 무술 기량 향상 및 상무정신함양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주최로 개최된 제 26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가 10월 28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장에서 개최되었다.

교도관 무도대회는 태권도, 검도, 유도 3개 종목을 유단자, 단외자, 경비교도대로 구분하여 단체전 경기를 실시하였다.

태권도경기에는 유단자부 5개팀 20명, 단외자부 10개팀 59명, 경비교도대 8개팀 32명이 참가했다.



다.

태권도 최우수상의 영광은 제주교도소 교사 공철국(직원), 수원교도소 상교 유응표(경비교도대)씨가 차지해 법무부장관의 표창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태권도 유단자부 우승은 제주

교도소, 준우승은 서울구치소, 단외자부 우승은 수원교도소, 준우승은 서울구치소, 장려상은 홍성교도소 단외자팀이 차지했다.

경비교도대는 수원교도소가 우승, 전주교도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일도 박영진, 창산 김대원 교수 서예전시회 및 동양화 전시회

태권도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표지의 제자(題字)를 써주신 일도선생과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는 창산선생이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연달아 전시회를 가졌다.

일도 박영진교수는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청구묵집 제3회전을 가졌다. 청구묵집전은 시암선생의 지고한 예술정신을 잇고 나아가 서예의 발전과 한국 서단에 보탬이 되고자 문화생들이 매년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이번에 도연명의 시인 오류선

생전을 출품한 일도선생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연특선,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경기도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전국 대학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창산 김대원교수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동송동에 있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제4회 개인전을 가졌다.

산수화를 화폭에 담아 자연미를 표현한 작품들은 미술계의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전시회

를 마쳤다.

창산은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제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차지한바 있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영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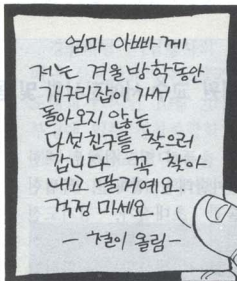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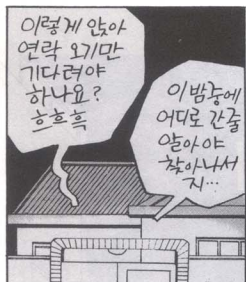
김대원교수

태권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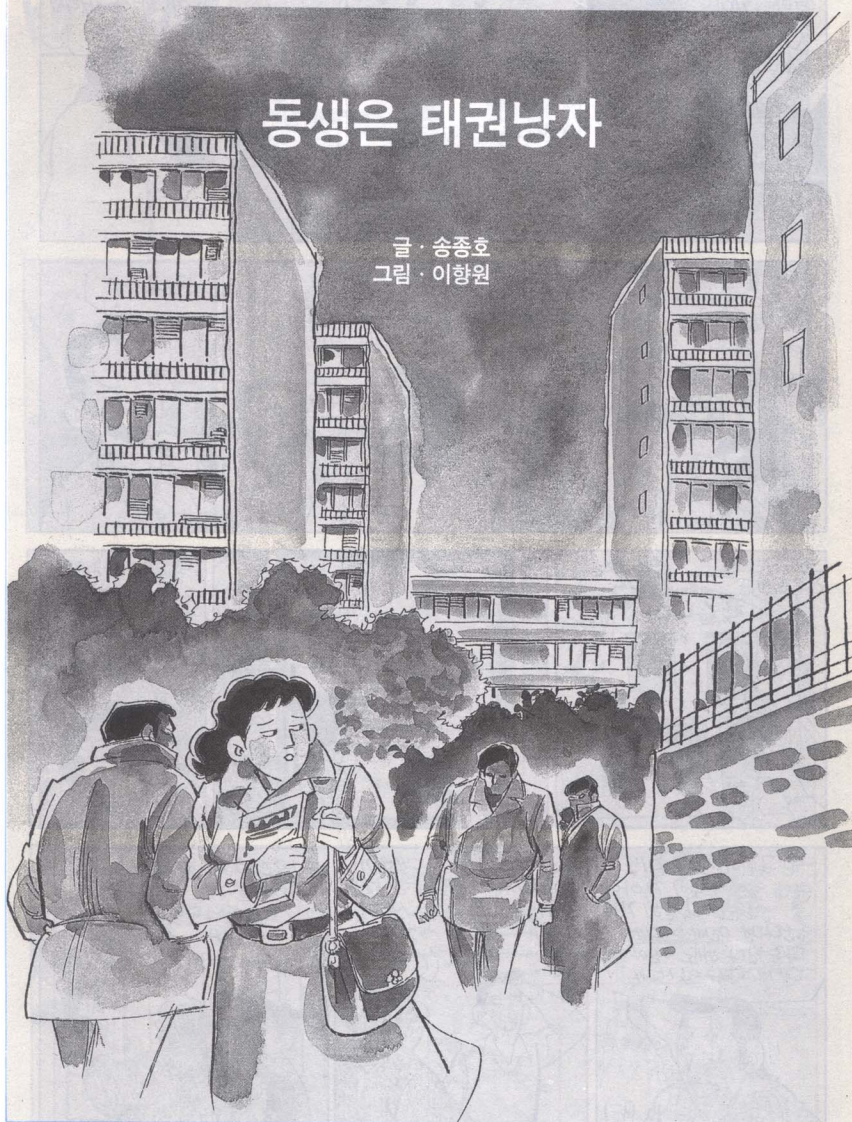
이향원





동생은 태권남자

글 · 송종호
그림 · 이항원



지방의 작은 도시. 요즘 들어 이 도시에서는 갖가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를 않았다. 연약한 부녀자들을 노린 불량배들의 강도와 폭력 등, 무방비 상태의 부녀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불량배들이 날뛰어 대는 이 도시는, 밤이면 부녀자들이 문 밖의 출입을 삼갈 정도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곤 하였다.

회사원인 현주는, 얼마 전부터 퇴근 후에 다니던 서예학원을 나가지 않고 있었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게 되면, 밤 늦은 시간이 도대체가 마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는 한 여고생이 불량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다. 도시의 밤 분위기가 그러고 보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일찌감치 귀가를 서두르고는 했다. 더욱이 현주네 집은 번두리 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었고 왕래하는 행인들도 많지가 않았다. 요즘 들어 부쩍 밤길에 두렵게만 여겨지는 현주였다.

서예학원 수강증을 끊어 놓은 채, 학원에는 잘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현주를 보고, 동생 현숙이는 이렇게 물어 왔다.

“언니 참 이상하다 요즘은 왜 서예학원엘 나가지 않는 거야?”

현숙이의 물음에, 차마 밤길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못했다. 그리고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했다.

“으응, 이제 며칠 후부터는 다닐 꺼야.”

현숙이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현숙이는 분명 이렇게 대꾸할 것이었다.

“에이, 언니두. 그간 밤길이 무섭다구 등록까지 해놓은 학원엘 안나가다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네. 그러게 내가 뭘래. 언니도 운동을 좀 배워 보라구 했잖아?”

현주를 이런 말로 핀잔줄 게 뻔했다.

올해 여고 졸업반인 동생은 이미 2년 전부터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그것도 치고박고 하는 태권도를 말이다. 현숙이는 지금 검은띠를 맨 태권도 선수인 것이다.

평소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를 자주하던 동생에게,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현숙이 몸 좀 튼튼해지라고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아빠의 말에 동생은,

“아빠, 무슨 운동요요?”

라고 물었다. 아빠는,

“요즘은 여학생들도 태권도를 많이 배우나 보더라.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여성들의 호신술로도 그만이라더구나, 어찌나, 일석이조가 아니냐?”

아빠의 말에 현숙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히야, 신난다. 아빠, 정말 태권도 배우게 해주시는 거죠?”

“아암, 너만 좋다면야.”

아빠와 현숙이의 그런 결정에 대해, 엄마와 현주는 크게 반대를 하였다.

“여자가 암전치 못하게 태권도가 다 뭐예요?”

“현숙아, 그건 왈패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난 반대야.”

라면서 현숙이가 태권도 배우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아빠의 적극적인 성원과 현숙이의 호응이 하나가 되었고, 동생은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숙이는 건강이 좋아졌고 잔병도 앓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이제 제법 태권도 선수로서도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이다. 현숙이는 마침내 대학까지도 태권도학과를 가기로 결정해 놓고 있었다.

현숙이가, 왜 서예학원엘 다니지 않는냐고 물었던 며칠 후부터 현주는 서예학원엘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숙이로부터 이런 다짐을 받아두었던 터였다.

“너, 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쯤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마중을 좀 나와 주겠니?”

“왜, 언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혼자 오

기가 무서워 그래.”

“이제 알겠다. 언니는 불량배들이 무서워 그러는 거지? 알았어, 언니. 그치만 댓가가 있어야 할 것 아냐?”

“요 짝쟁이, 그래. 매달 말일에 수고비를 지불할게.”

“와야, 신난다!”

다음 날부터 현주가 서예학원을 마치고 귀가할 무렵이면, 현숙이가 버스정류장에 나와 기다리다 함께 집으로 가고는 하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마중나온 동생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현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 보았다. 아나나 다들까, 웬 남자 한 명이 그들을 뒤쫓아 오고 있었다. 현주는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동생에게 누군가가 우릴 쫓아오고 있다면서 불안해 했다. 동생은 두려운 기색도 없이 태연히 말하는 것이었다.

“괜찮아, 언니. 혹시 그 사람이 우릴 해치려 들거든, 언니는 내 옆에서 몇 걸음 비껴나 있어. 그 다음엔 내게 맡겨둬.”

동생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현주의 뒤로 다가와와 덩썩! 손목을 움켜 잡았다. 그러면서,

“이봐, 아가씨. 나하고 얘기 좀 할까.”라며 현주를 잡아 끌었다. 현주는 온 힘을 다해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현숙이의 등 뒤로 숨었다. 남자는 다시 현숙이

에게 시비를 걸어 왔다. 그 남자가 현숙이의 손목을 잡자, 현숙이는 남자를 때밀면서 말했다.

“아저씨, 우린 집이 여기예요. 점잖게 보내 주세요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물러나지 않고 현숙이의 뺨을 손으로 만지면서 말했다.

“아쭈, 제법 당차게 나오시네. 그러니까 더 귀여운 걸.”

남자는 계속해서 추근거리는 거였다. 그때, 현숙이가 현주의 귓가에 소근거렸다.

“언니, 내 곁에서 몇 걸음만 물러나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현숙이의 입에서는,

“이-앗”

기합소리와 함께 한쪽 다리를 들어올려 남자의 가슴께를 찌차기로 내질렀다. 남자는 벌렁! 뒤로 나자빠지면서,

“어이쿠...!”

하는 신음을 쏴아 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싸안고 있었다. 현숙이는 남자에게 양갈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가볍게 대해준 거라고 웃, 다음에 또 그런짓을 하면 그때 진짜 태권도 맛을 보여 주겠어요!”

현숙이는 현주의 팔을 잡아 끌면서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 가.”

두 사람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갈거리면서 걷고 있었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겨가면

서, 현주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빠가 현숙이에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신데는, 선견지명이 있으셨기 때문일 거야. 나도 진작에 태권도를 배워 둘 걸...!)



송종호

글쓴이 소개

- 황해도 해주산(49년)
- 아동문예지 동화 추천
- 동화집 「아기 임금」을 비롯 해, 동화 「잃어버린 꿈」「잃어버린 땅」「서러운 바다」「운동화 두 컬레」의 다수의 작품.

2급 사회(생활) 체육지도자교육

1991년 12월31일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2급 사회체육지도자 합격자명단을 발표했다.

2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은 지난 87.88년도에 2차례 실시된 적이 있으나 태권도가 전공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태권도인들이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91년도에 부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된 2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부터는 태권도 종목이 포함되어 이번에 태권도에서는 처음으로 8명이 2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했다.

다음은 2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에 참가한 김종연씨(화랑체육관장)가 2급교육의 선발과정서부터 자격취득까지의 과정을 소개, 2급 사회체육지도자 교육에 관심있는 태권도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종연

(화랑체육관장)

1. 91년도 2급사회체육지도자 129명 최종 합격

91년 2급 과정에는 25개종목에 총343명이 응시하여 면접과 전공1종목, 부전공2종목 실기에 합격한 사람은 164명이었다.

이들은 12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 3주간 매일 오전 9:30~4시 15분까지 1일 8시간 교육에 임하여 중간에 휴학 및 제적 처리자를 제외한 157명이 수료했으며 12월27일 치론 검정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는 129명이다.

시험과목으로는 교양2과목, 체육일반 7과목, 그리고 논설(제목 지정) 1편과 각 과목별 20문제에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이하의 절대평가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의 특성별 비율을 보면 실기에 강한 20대가 3분의 2정도이고 학력면에서는 50%이상이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였다.

남·여의 비율로는 3분의 1정도가 여자로 특히 에어로빅과 수영쪽에 여자 지원자가 많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 연수생이 3분에 1을 차지한 것이다.

2. 선발 절차 및 실기 선발 과정

가) 응시 자격 및 연수 기간 자격부여 종목등은 (표-1)과 같다.

나) 실기 선발 방법

① 전공 1종목 : 자신의 해당종목(태권도 4단, 사범자격증, 경력증명서 첨부시 실기면제 서류 면접후 결정)

② 부전공2종목 : 자신의 소질과 특기에 맞는 2종목을 실제 현장에서 그 종목

(표-1)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급별 역할·자격 연수등

구분 급별	급별역할	자 격 요 건	자 격 부 여 특 례	자격부여 방 법	연수시간 및 교과목	자 격 부 여 종 목
2급	지역주민 직장인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도	○체육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또는 체육전문대 졸업+2년이상 경력자 ○전문대 또는 체육고 졸업+4년이상 경력 ○고졸+5년이상 경력자 ○3급자격으로 3년이상 경력자	○대학의 사회체육학과 졸업자로서 체육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이수자 ○학교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로서 특별연수과정수료자	연수과정 수료(144시간이상+검 정시험합격	○144시간(3주) ○연수과목 -교양: 사회교육론, 사회환경복지론 -체육일반(7): - 사회체육지도법, 스포츠사회심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사회체육경영론, 여가론, 체육행정론, 운동검사론	<전 공>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사이클, 체조(에어로빅, 리듬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빙상, 스키, 플러스스케이팅, 볼링, 골프, 수상스키, 산악, 보디빌딩, 레크리에이션, 게이트볼, 오리엔티어링, 행글라이딩, 윈드서핑 중 1종목 <부전공>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럭비풋볼, 체조(에어로빅, 리듬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보디빌딩, 레크리에이션, 게이트볼 중 2종목

의 전문가가 실기 시험 실시후
2급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인정
될시 선발함.

- 대부분 자신의 전공은 합격되지만 부전공 2종목중 1개종목이라도 과락점수에 해당 되면 불합격 처리됨으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 단, 부전공중 3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시 부분적으로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

3. 3급과 비교해 본 2급 교육

본인은 경기 지도자 1급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체육부 검정 자격 시험을 치루었지만 이번 2급 같이 선발과정부터 엄격하고 까다로운 교육은 처음으로 기억된다.

먼저 3급은 1종목의 현장 지도자, 기존 체육관 운영자 혹은 등록상에 갖추어야 하는 지도자 과정 인 반면에 2급은 3종목 이상의 다양한 체육 전문 지도자의 자질과 경력을 겸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이다.

교과 과목도 3급은, 50시간(1주일)이상 체육의 기초영역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 반면 2급은 144시간(3주간) 이상의 체육에 전문 영역 지도방법과 운영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간단히 말하면 직장 체육 지도자, 대형 사회 체육 센터 운영자 과정 등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리라 본다. 교과 과목은 교양 2과목 체육 일반 7과목 그리고 논문 구성요령과 기자재 사용방법과 실기 교육이 가미되어 실시되었으며 교수진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서울대와 각대학체육과 교수 등 유명 강사로 구성 되었다.

앞으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체육지도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지도자라는
점에서 2급 사회 체육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특히 2급 자격취득시 3종목의
자격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앞으로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특채가 예상된다.

4. 태권도 2급에 8명, 3급에 1679명의 사회 체육지도자배출

사회체육지도자교육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11조(체육 지도자 양성)과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체육 지도자 양성 및 자질향상)에 근거를 두고 시작 되었다.

그동안 사회(생활)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과 태권도 지도자의 자격 취득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사회체육지도자 배출현황 ('91.12. 현재)

년도별 \ 급별	2급	3급
87	783	-
88	436	-
89	-	2,629 (738명)
90	-	3,829 (372명)
91	129 (8명)	3,356 (569명)
계	1348 (8명)	9,794 (1,679명)

※1급은 실시된적이 없다.

※각 년도별로 ()안은 태권도 급별 자격 취득 인원임.

※태권도는 국기원과 지방 5개 대학에서 3급을 배출한다. 단, 2급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만 실시.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3급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2급은 홍보 부족과 인식부족 등으로 태권도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체육지도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지도자라는 점에서 2급 사회 체육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특히 2급 자격취득시 3종목의 자격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앞으로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특채가 예상된다.

5. 교육참가를 권하며

어떤 교육을 받든지 도장을 운영하거나 팀을 맡고있는 지도자 대부분이 그 교육에 소비되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 이론의 장에 등을 꺾게된다.

본인도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시작했고 특히 체육관운영과 강의가 중복된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일하게 도장을 운영한다면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회의 여러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어느 시기가되면 계속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은 보다 과감히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교육에 임해 보다 효율적인 도장운영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태권**

앞으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체육지도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지도자라는
점에서 2급 사회 체육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특히 2급 자격취득시 3종목의
자격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앞으로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특채가 예상된다.

4. 태권도 2급에 8명, 3급에 1679명의 사회 체육지도자배출

사회체육지도자교육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11조(체육 지도자 양성)과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체육 지도자 양성 및 자질향상)에 근거를 두고 시작 되었다.

그동안 사회(생활)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과 태권도 지도자의 자격 취득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사회체육지도자 배출현황 ('91.12. 현재)

년도별 \ 급별	2급	3급
87	783	-
88	436	-
89	-	2,629 (738명)
90	-	3,829 (372명)
91	129 (8명)	3,356 (569명)
계	1348 (8명)	9,794 (1,679명)

※1급은 실시된적이 없다.

※각 년도별로 ()안은 태권도 급별 자격 취득 인원임.

※태권도는 국기원과 지방 5개 대학에서 3급을 배출한다. 단, 2급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만 실시.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3급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2급은 홍보 부족과 인식부족 등으로 태권도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체육지도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지도자라는 점에서 2급 사회 체육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특히 2급 자격취득시 3종목의 자격을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앞으로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특채가 예상된다.

5. 교육참가를 권하며

어떤 교육을 받든지 도장을 운영하거나 팀을 맡고있는 지도자 대부분이 그 교육에 소비되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 이론의 장애 등을 겪게된다.

본인도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시작했고 특히 체육관운영과 강의가 중복된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일하게 도장을 운영한다면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회의 여러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어느 시기가되면 계속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은 보다 과감히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교육에 임해 보다 효율적인 도장운영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태권**

태권도 가르치자 성적도 급향상, 싱가포르 교육계 주목

싱가포르의 한중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고 강인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 싱가포르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대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의무적인 태권도교육이 학생들에게 모든 일에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카톨릭계인 마리스·스텔라 중학교에서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이학교장인 안토니·탄씨가 한국에 다녀온 뒤인 지난 88년부터.

안토니교장은 한국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학생들도 보다 적극적인 성품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마침 체육교육에 중점을 두라는 정부시책이 나온 때여서 학교자체로 태권도를 일주일에 두시간씩 커리큘럼에 넣는 데 별 어려

움이 없었다.

토요일이면 이학교강당은 태권도구령으로 요란하다. 1학년 학생 2백80명이 싱가포르태권도협회의 지원을 받아 태권도를 배우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중 20%는 벌써 유단자로 검은 띠를 띠다. 상급학생이나 고교생이 된 학생들도 이시간이면 찾아와 함께 연습하며 후배들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면서부터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이학교의 연례학력평가교사합격률이 40%정도로 다른 학교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편이었으나 올해 50%로 올라갔고 내년에는 평균수준인 60%를 목표로 하고있다.

처음에는 태권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폭력성 파괴성 같은 선입견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했으나 학생들 스스로 좋아해 지금까지 한번도 불평이나 항의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

이학교 체육교사인 폴·영씨(28)는 「태권도를 가르친뒤 학생들의 성격이 활달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는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급 학교에서 견학와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태권도를 정규교육 과정에 넣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싱가포르=崔海雲특파원】

(한국일보 91년 10월 19일 보도)

태권도 코치의 경쟁가치 리더쉽 유형에 관한 연구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태권도의 실력과 기술은 세계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원로 태권도인과 지도자, 코치, 일선사범들의 저변확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연구의 결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태권도는 범세계적으로 120여개국 이상 보급되어 이제는 우리가 최고수준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헤비급과 미들급은 다른 국가의 선수들에게 종주국의 태권도로서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기량이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경량급 마저 위태로울 것이라고 예견된다.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기술개발과 연구노력 뿐만 아니라 그외의 다른 즉, 코치의 리더쉽 연구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코치가 행사하는 지도력은 팀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이 강화된 동기는 경기력 향상의 효율성에 궁극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에서 지도력에 관한 연구는 태권도의 경기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태권도 코치들의 경쟁가치 리더쉽 유형의 파악과 동시에 코치 각 개인이 발휘하는 리더쉽의 장.단점을 발견하여 코치 각 개인이 보다 훌륭하게 팀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글 · 김종설

1955년생

서울 효자체육관 관장.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1급 경기 지도자

연수원에서 태권도를 전공(1991.10)

2. 이론적 배경

1) 코치의 지도력 정의

지도력이란 스포츠상에서 선수가 운동수행에 있어 체력, 기술, 전술 및 전략,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코치가 해야 할 행위들이다. 그중에서도 stogdill은 지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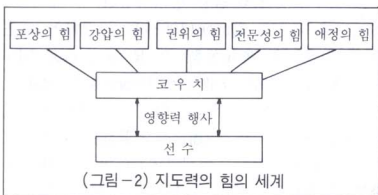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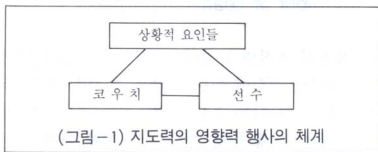
첫째, 두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

둘째, 공통 과제

셋째, 책임의 분담을 들면서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지도력이란 조직된 집단의 목표설정이나 목표달성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스포츠집단에서 stogdill이 주장한 과정을 Carron(1980)은 영향 체계(influence system)와 권한체계(power system)로 분류하였다.

영향력 체계는 코치자신도 팀분위기와 선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며, 권한체계는 코치들에게서 선수의 영향력이나 체력의 흐름이 일방적인 체계로서 이체계내에서는 코치와 선수가 종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 (그림-1)과 (그림-2)이다.



2) 지도력의 이론

지도력에 관한 연구이론은 특성이론, 보편적 행

동이론, 유관이론, 상황 특수이론, 다차원 모델이론(multidimensional model), 경쟁가치이론(coach's competing values leadership)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특성이론

특성이론에서는 지도자들이 일정한 성격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특이한 성격적 특성과 특질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2차대전 직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이론이며, 지도자에게 알맞는 성격적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주장으로서 성격검사에 의하여 추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1948년 stogdill의 연구결과와 발표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2) 보편적 행동이론

2차세계대전 이후 지도력에 관한 연구자들은 보편적 특성에서 보편적 행동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것은 성공적인 지도자는 어떤 보편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성공적인 지도자의 행동을 배우게 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런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연구결과가 대표적이다.

*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shartle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특성보다는 과제수행 능력이나 행동을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10년 장기 지도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군대, 기업, 산업, 교육, 행정조직에서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는가를 측정하는 LBDQ(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지도자 행동기술 질문지를 발달시켰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도자의 행동에서 지도력 요인으로 중시되는 것이 신중성과 통솔력으로 나타났다. 신중성은 우정, 상호신뢰, 존경, 포근함이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둔 행동이고 구성간에 좋은 대인관계 수립, 조직적 장악, 대화체계의 확립, 집단운영과정의 확립과 관련된 행동이다.

91년 10~12월

행 사 기 록

국제대회

제10회 남자및 제3회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 (10.28~11.3, 그리스아테네)

(남자부)

▲편급

1위 : GERGELY SALIM

(헝가리)

2위 : CHANG JUNG SAN

(중화대북)

3위 : SYROUS REZAET

(이란)

강 철 우 (한국)

▲플라이급

1위 : 김 철 호 (한국)

2위 : SALIM JOSEF

(네팔)

3위 : ESPARZA GABRIEL

(스페인)

TAPILATU DJANGO

(네덜란드)

▲밴텀급

1위 : ALONSO ANGEL

(스페인)

2위 : SAYEN NAJEM

(캐나다)

3위 : 선 상 준 (한국)

EKREM BOYALI

(터어키)

▲페더급

1위 : 장 혁 (한국)

2위 : TAPILATU STEFAN

(네덜란드)

3위 : CONCALVES JORGE

(브레인)

TAMER ARD EL MONEM

(이집트)

▲라이트급

1위 : 양 대 승 (한국)

2위 : ABRATIQUE

RAMILITO

(필리핀)

3위 : COLLINSON JOHN

(호주)

HIANG MING JEN

(중화대북)

▲웰터급

1위 : 박 용 웅 (한국)

2위 : VILLASANA JAMES

(미국)

3위 : KONDO HISASHI

(일본)

HUGO GARCIA

(멕시코)

▲미들급

1위 : 윤 순 철 (한국)

2위 : YEHYA ALAM

(이집트)

3위 : METIN SAHIN

(터어키)

PEREZ HERBERT

(미국)

▲헤비급

1위 : SORENSEN TONNY

(덴마크)

2위 : SCHAWO OLIVER

(독일)

3위 : JORDAN MIGUELL

(스페인)

AMR KHAIRY

(이집트)

(여자부)

▲편급

1위 : DELGADO

ELISABETH

(스페인)

2위 : GULNUR YERLISU

(터어키)

3위 : WU SHAN-CHEN

(중화대북)

김 진 성 (한국)

▲플라이급

1위 : ARZU TAN

(터어키)
2위 : VAN DER PAS
(네덜란드)
3위 : VALENZUELA
(아르헨티나)
TANGHUI - WEN
(중화대북)

▲밴텀급

1위 : 박 동 선(한국)
2위 : DONDU SAHIN
(터어키)
3위 : WALKER KATHY
(영국)
SOLIS ROSARIO
(스페인)

▲페더급

1위 : TUNG YA-LING
(중화대북)
2위 : AYSEGUL ERGIN
(터어키)
3위 : LOPEZ JOSEFINA
(스페인)
AZAA ADEL
(이집트)

▲라이트급

1위 : 정 은 옥(한국)
2위 : CHEN YI-AN
(중화대북)
3위 : THIELMAN
MINOUCHKA
(네덜란드)
KNOLL DOLORES
(멕시코)

▲웰터급

1위 : LIMAS ARLENE
(미국)

2위 : BISTUER CORAL
(스페인)

3위 : 조 향 미(한국)
DROSIDOU E.
(독일)

▲미들급

1위 : 양 인 덕(한국)
2위 : AARON CHAVELA
(미국)
3위 : DEL REAL
(멕시코)
KETESIDOU T.
(그리스)

▲헤비급

1위 : LOVE LYNETTE
(미국)
2위 : FRANSSEN YVONNE
(캐나다)
3위 : WIDEHOV ANNA
(스웨덴)
HIPF BETTINA
(그리스)

(종합성적)

▲남자부

1위 : 한 국(금5, 동2)
2위 : 덴마크(금2, 은1)
3위 : 스페인(금1, 동2)
4위 : 이집트(은1, 동2)
5위 : 미 국(은1, 동1)

▲여자부

1위 : 한 국(금3, 동2)
2위 : 터어키(금1, 은3)
3위 : 미 국(금2, 은1)
4위 : 스페인(금1, 은1, 동3)
5위 : 대 만(금1)

국내대회

제15회 연세대 총장기 전국 남녀고교대회 (10. 4~6, 연세대체육관)

(남고부)

▲핀급

1위 : 조 재 성(서울체고)
2위 : 전 영 민(성동고)
3위 : 강 성 일(영북중고)
류 영 준(선인고)

▲플라이급

1위 : 박 영 민(관악고)
2위 : 한 송 수(송실고)
3위 : 박 영 민(동천고)
최 정 훈(충북체고)

▲밴텀급

1위 : 최 병 수(정명고)
2위 : 김 형 원(선인고)
3위 : 김 홍 식(풍생고)
양 경 식(단대부고)

▲페더급

1위 : 강 성 봉(동성고)
2위 : 조 국 환(개금고)
3위 : 유 제 봉(송실고)
이 동 수(관악고)

▲라이트급

1위 : 최 영 민(선인고)
2위 : 지 광 현(정명고)
3위 : 방 영 인(서울체고)
김 실 용(영북중고)

▲웰터급

1위 : 최 승 길(부평기고)
2위 : 정 용 운(리라공고)

3위 : 박 승 균(완산고)
김 동 민(충북체고)

▲미들급

1위 : 이 동 완(서울체고)
2위 : 김 성 중(송림고)
3위 : 윤 호 영(인천체고)
강 한 구(리라공고)

▲헤비급

1위 : 백 승 훈(서울체고)
2위 : 김 인 재(인천체고)
3위 : 안 광 수(풍생고)
박 상 균(선인고)

(여고부)

▲핀급

1위 : 강 선 경(인천체고)
2위 : 유 수 미(리라공고)
3위 : 김 희 성(김체복고)
김 자 영(은광여고)

▲플라이급

1위 : 라 인 경(문성여상)
2위 : 이 순 영(고양중고)
3위 : 최 재 숙(송곡고)
최 미 나(배성여상)

▲밴텀급

1위 : 김 혜 선(은광여고)
2위 : 이 경 민(시온고)
3위 : 김 회(완산여상)
전 난 회(태원고)

▲페더급

1위 : 서 연 화(천안여고)
2위 : 박 경 숙(은광여고)
3위 : 박 계 회(배성여상)
김 옥 선(고양여중고)

▲라이트급

1위 : 김 은 이(고양여중고)

2위 : 윤 명 숙(인천체고)
3위 : 최 동 현(은왕여고)
신 은 정(리라공고)

▲웰터급

1위 : 박 상 회(리라공고)
2위 : 정 윤 경(송곡고)
3위 : 임 경 화(배성여상)
신 경 숙(인천체고)

▲미들급

1위 : 이 용 화(영복중고)
2위 : 김 영 회(덕소고)
3위 : 김 상 순(배성여상)

▲헤비급

1위 : 정 명 숙(혜성여고)
2위 : 윤 현 정(문성여상)
3위 : 라 명 숙(배성여상)
신 혜 진(인천체고)

(단체성적)

▲남고부

종합우승 : 서울체고
준우승 : 선인고
3위 : 정명고
감투상 : 관악고
장려상 : 부평기고
지도상 : 서울체고
최우수상 : 조재성(서울체고)

▲여고부

종합우승 : 은광여고
준우승 : 인천체고
3위 : 리라공고
감투상 : 문성여상
장려상 : 배성여상
지도상 : 은광여고
우수상 : 김혜선(은광여고)

제72회 전국 체육 대회 (10. 8~12, 전주고체육관)

(고등부)

▲핀급

1위 : 진 승 태(경남체고)
2위 : 정 진 백(충북체고)
3위 : 이 정 훈(완산고)
김 현 식(강원사대부
고)

▲플라이급

1위 : 김 봉 찬(광주체고)
2위 : 고 동 완(전북체고)
3위 : 김 남 경(남주교)
장 대 순(동성고)

▲밴텀급

1위 : 이 재 석(한영고)
2위 : 윤 병 관(광성고)
3위 : 최 재 훈(경상공고)
이 광 주(도계고)

▲페더급

1위 : 신 보 현(청주기공)
2위 : 박 환 우(광주체고)
3위 : 유 정 석(전북체고)
최 성 진(천안중앙고)

▲라이트급

1위 : 안 홍 엽(송림고)
2위 : 양 재 훈(여수고)
3위 : 조 동 진(군산중앙고)
김 진(경상공고)

▲웰터급

1위 : 이 중 현(서울체고)
2위 : 류 창 수(동천고)
3위 : 박 태 수(전북체고)
임 석 배(대전체고)

▲미들급

1위: 김 정 규(선인고)
 2위: 손 용 구(대성고)
 3위: 고 재 환(여수고)
 김 원 식(광주체고)

▲헤비급

1위: 안 성 주(대전체고)
 2위: 홍 종 수(충북체고)
 3위: 안 금 호(광성고)
 이 종 길(군산중앙고)

(대학부)

▲핀급

1위: 맹 성 재(경희대)
 2위: 김 건 일(계명대)
 3위: 조 영 국(동아대)
 이 대 훈(체과대)

▲플라이급

1위: 김 인 경(한체대)
 2위: 박 재 성(한체대)
 3위: 구 동 신(경상대)
 조 현 식(조선대)

▲밴텀급

1위: 권 태 호(경희대)
 2위: 권 오 철(청주대)
 3위: 남 학 현(체과대)
 윤 철(우석대)

▲페더급

1위: 정 을 진(경희대)
 2위: 김 성 진(한체대)
 3위: 조 기 현(경희대)
 김 현 철(한체대)

▲라이트급

1위: 하 태 경(한체대)
 2위: 윤 정 욱(경희대)
 3위: 정 광 채(한체대)
 박 춘 길(관동대)

▲웰터급

1위: 김 광 수(한체대)
 2위: 공 두 환(경희대)
 3위: 서 재 남(충남대)
 양 원 철(청주대)

▲미들급

1위: 황 일 선(충남대)
 2위: 이 성 훈(한체대)
 3위: 이 광 섭(청주대)
 김 병 기(조선대)

▲헤비급

1위: 김 제 경(동아대)
 2위: 최 상 진(경희대)
 3위: 박 경 철(관동대)
 이 재 영(성균관대)

(일반부)

▲핀급

1위: 이 정 원(전북협회)
 2위: 한 지 환(전남협회)
 3위: 이 화 진(희망체육관)
 차 재 학(대구협회)

▲플라이급

1위: 이 종 선(강원도협회)
 2위: 배 상 철(전북협회)
 3위: 나 광 윤(광주협회)
 김 영 주(상무)

▲밴텀급

1위: 이 종 현(상무)
 2위: 강 동 범(상무)
 3위: 임 성 욱(금북주)
 이 상 훈(대전협회)

▲페더급

1위: 김 병 철(상무)
 2위: 오 영 주(상무)
 3위: 노 창 식(보령군청)

정 승 환(지하철공사)

▲라이트급

1위: 성 의 천(상무)
 2위: 왕 광 연(광주협회)
 3위: 안 현 상(전북협회)
 김 홍 철(경산시청)

▲웰터급

1위: 진 정 우(상무)
 2위: 김 성 택(광주협회)
 3위: 채 우 병(강원도협회)
 윤 만 철(금북주)

▲미들급

1위: 박 은 석(전남협회)
 2위: 김 경 진(전북협회)
 3위: 백 봉 진(광주협회)
 박 만 성(강원도협회)

▲헤비급

1위: 이 계 행(광주)
 2위: 노 신(경기도협회)
 3위: 고 영 철(전남협회)
 최 원 국(제주도협회)

'91년도 전국 남녀우수선수 선발대회 (11. 6~8, 국기원)

(남자부)

▲핀급

1위: 김 정 오(동성고)
 2위: 진 승 태(경남체고)
 3위: 이 정 훈(완산고)
 여 원 재(동성고)

▲플라이급

1위: 서 성 교(한체대)
 2위: 김영수(국군체육부대)
 3위: 서 보 훈(한체대)

맹 성 재(경희대)

▲밴텀급

1위: 박 형 식(한체대)

2위: 김 민 수(동성고)

3위: 김 병 욱(동성고)

박 병 익(경희대)

▲페더급

1위: 김병철(국군체육부대)

2위: 안 홍 엽(송림고)

3위: 김 성 진(한체대)

임 성 수(관악고)

▲라이트급

1위: 신 경 수(청주대)

2위: 정 광 채(한체대)

3위: 이 종 학(현대자동차)

곽 택 용(인천체고)

▲웰터급

1위: 임 영 호(경희대)

2위: 진정우(국군체육부대)

3위: 홍 문 주(동아대)

최 승 길(부평기고)

▲미들급

1위: 박 종 범(한체대)

2위: 이 현 석(동아대)

3위: 공 두 환(경희대)

최 정 복(경희대)

▲헤비급

1위: 김 제 경(동아대)

2위: 박 형 래(체과대)

3위: 노 신(현대정공)

문 청 일(경희대)

(여자부)

▲핀급

1위: 강 선 경(인천체고)

2위: 양 소 희(천안여고)

3위: 이 순 영(고양종고)

최 영 아(자양중)

▲플라이급

1위: 김 민 정(체과대)

2위: 모 선 영(인덕공고)

3위: 김 지 향(광명상고)

최 재 숙(송곡고)

▲밴텀급

1위: 김 은 숙(체과대)

2위: 진 용 순(광명상고)

3위: 조 미 레(대원여중)

양 은 정(성남여중)

▲페더급

1위: 권 혁 실(체과대)

2위: 이 현 화(경희대)

3위: 김 성 숙(성신여대)

서 연 화(천안여고)

▲라이트급

1위: 박 정 희(한체대)

2위: 진 혜 윤(경희대)

3위: 강 지 희(소래중고)

윤 명 숙(인천체고)

▲웰터급

1위: 박 선 미(상명여대)

2위: 이 미 라(성신여대)

3위: 신 은 정(리라공고)

고 내 언(고양종고)

▲미들급

1위: 박 혜 영(경희대)

2위: 이 선 회(체과대)

3위: 이 은 주(성신여대)

박 상 회(리라공고)

▲헤비급

1위: 박 은 주(상명여대)

2위: 윤 현 정(문성여상)

3위: 최 민 정(대원여중)

최 연 화(인천전문대)

제17회 국민학교연맹회장기 전국국민학교대회

(12. 12~13, 국기원)

(단체성적)

▲남자부

우승: 충북서원국고

준우승: 경기용인국고

3위: 경기서릉국고

장려상: 경기성남제2국고

감투상: 제주서귀중앙국고

▲여자부

우승: 서울은천국고

준우승: 서울신석국고

3위: 경기영풍국고

장려상: 경기용인국고

감투상: 서울강덕국고

▲최우수선수상

남자: 김정훈(충북서원국고)

여자: 최윤희(서울은천국고)

품새: 최동훈(서울미동국고)

(남자부)

▲핀급

1위: 손 영 복(서울은천)

2위: 정 두 채(경기서릉)

3위: 이 상 균(충북서원)

명 재 진(경기단대)

▲플라이급

1위: 서 규 남(경기서릉)

2위: 이 원 재(경기단대)

3위: 김 종 성(전남여수남)

이 창 훈(제주서귀중앙)

▲밴텀급

1위 : 신 영 재(충북서원)
 2위 : 박 용 구(경기용인)
 3위 : 김 윤 수(경기신일)
 정 광 채(경기서릉)

▲페더급

1위 : 이재우(제주서귀중앙)
 2위 : 이 택 균(경기부원)
 3위 : 김 성 용(서울거여)
 전재현(경기성남단대)

▲라이트급

1위 : 김 정 훈(충북서원)
 2위 : 박순철(제주서귀중앙)
 3위 : 김 진 호(경기상원)
 이 근 호(서울금천)

▲라이트 웰터급

1위 : 엄 광 흡(경기성남제2)
 2위 : 박 해 창(경기상원)
 3위 : 서창우(제주서귀중앙)
 김 경 식(서울금천)

▲웰터급

1위 : 황 길 재(전북성송)
 2위 : 정 우 열(전남여수남)
 3위 : 최 북 철(충북서원)
 이 덕 휘(경기도원)

▲라이트 미들급

1위 : 김 준 태(경기용인)
 2위 : 이 재 석(강원우산)
 3위 : 한 전 민(서울은천)
 박 회 철(전남여수남)

▲미들급

1위 : 구 범 모(충북서원)
 2위 : 유지훈(경기성남제2)
 3위 : 이 환 수(서울정목)
 하 명 일(경기용인)

▲라이트 헤비급

1위 : 서 기 풍(서울보광)

2위 : 유 현 민(경기서릉)
 3위 : 박 영 태(강원장성)
 이 영(서울언남)

▲헤비급

1위 : 정 영 철(경기용인)
 2위 : 박 만 춘(경남우정)
 3위 : 김 선 호(경기도원)
 윤 다 함(서울강덕)

(여자부)

▲관급

1위 : 정 재 은(서울은천)
 2위 : 유 영 미(경기부양)
 3위 : 김 원 희(서울양동)
 함 성 인(경기성남북)

▲플라이트급

1위 : 윤 성 희(서울은천)
 2위 : 최 유 리(서울강덕)
 3위 : 정 필 교(경기용인)
 임 경 화(서울거여)

▲밴텀급

1위 : 강 영 미(경기용인)
 2위 : 강 여 진(서울신석)
 3위 : 김 은 혜(서울거여)
 최 은 미(서울보광)

▲페더급

1위 : 김 주 희(경기금촌)
 2위 : 구 혜 림(서울신석)
 3위 : 송 은 정(서울은천)

▲라이트급

1위 : 김 지 우(서울강덕)
 2위 : 홍 영 재(서울탑동)
 3위 : 김 지 연(서울도신)

▲라이트 웰터급

1위 : 최 윤 희(서울은천)
 2위 : 유 은 주(서울신석)

3위 : 김 혜 영(경기금광)
 나 지 숙(경기석수)

▲웰터급

1위 : 박재연(충남예산중앙)
 2위 : 이 도 윤(서울영풍)
 3위 : 서 진(서울은천)
 승 혜 원(경기소래)

▲라이트 미들급

1위 : 풍 정 아(서울보광)
 2위 : 임 인 옥(서울강신)
 3위 : 유 진 아(경기석수)

▲미들급

1위 : 정 미 나(서울영풍)
 2위 : 이 주 영(경기석수)
 3위 : 이 현 아(서울고일)
 최 지 영(서울신서)

▲라이트 헤비급

1위 : 김 유 미(서울금천)
 2위 : 광 정 원(서울영풍)
 3위 : 김 선 아(경기석수)
 김 보 라(경기구리)

▲헤비급

1위 : 김 원(서울신석)
 2위 : 이 미 현(경기용인)
 3위 : 신 정 선(경기소래)
 홍 선 화(서울영풍)

92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 대회 (12.9-12, 상무체육관)

(남자부)

▲핀급

1위 : 조 영 국(동아대)
 2위 : 정 주 철(충남대)
 3위 : 유 성 호(체과대)

임 창 섭(상무)

▲플라이급

- 1위 : 이 경 호(경희대)
2위 : 장 대 순(동성고)
3위 : 황 동 환(경남체고)
박 재 성(체과대)

▲밴텀급

- 1위 : 김 현 용(경희대)
2위 : 남 학 현(체과대)
3위 : 김 병 옥(풍생고)
이 동 수(관악고)

▲페더급

- 1위 : 박 기 채(한체대)
2위 : 이 용 일(상무)
3위 : 이 두 상(광주체고)
강 재 구(계명대)

▲라이트급

- 1위 : 박 의 성(한체대)
2위 : 곽 택 용(인천체고)
3위 : 박 재 홍(동아대)
성 의 찬(상무)

▲웰터급

- 1위 : 하 태 경(한체대)
2위 : 신 광 수(한체대)
3위 : 김 광 수(한체대)
최 종 복(경희대)

▲미들급

- 1위 : 하 태 진(풍생고)
2위 : 김 두 원(조선대)
3위 : 김 정 규(선인고)
이 동 환(서울체고)

▲헤비급

- 1위 : 김 봉 근(경희대)
2위 : 이 건 원(경산시청)
3위 : 노 신(현대정공)
김 현 일(지하철공사)

(여자부)

▲핀급

- 1위 : 이 순 영(고양종고)
2위 : 유 수 미(리라공고)
3위 : 최 인 숙(인천전문대)
김 자 영(은광 여고)

▲플라이급

- 1위 : 서 미 라(인천체고)
2위 : 이 화 진(경희대)
3위 : 박 은 미(성신여대)
김 선 양(고양종고)

▲밴텀급

- 1위 : 원 선 진(효원고)
2위 : 이 승 민(은광여고)
3위 : 임 선 희(관인고)
황 은 숙(상명여대)

▲페더급

- 1위 : 박 경 숙(은광여고)
2위 : 박 정 미(상명여대)
3위 : 윤 회(한체대)
김 성 숙(성신여대)

▲라이트급

- 1위 : 윤 명 숙(인천체고)
2위 : 김 은 이(고양종고)
3위 : 김 옥 님(배성여상)
강 귀 정(문성여상)

▲웰터급

- 1위 : 김 미 영(체과대)
2위 : 신 은 정(리라공고)
3위 : 이 은 주(한체대)
백 정 자(동명전문대)

▲미들급

- 1위 : 박 상 회(리라공고)
2위 : 이 은 주(성신여대)
3위 : 김 은 주(인천체고)
이 용 화(영북종고)

▲헤비급

- 1위 : 추 수 연(은광여고)
2위 : 최 연 화(인천전문대)
3위 : 정 명 숙(혜성고)
백 영 미(경희대)

'92년도 남녀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12.26~28, 상무체육관)

(남자부)

▲핀급

- 1위 : 진 승 태(경남체고)
2위 : 임 창 섭(상무)
3위 : 조 영 국(동아대)
강 철 우(상무)

▲플라이급

- 1위 : 서 성 교(한체대)
2위 : 박 재 성(한체대)
3위 : 서 보 훈(한체대)
이 경 호(경희대)

▲밴텀급

- 1위 : 권 태 호(경희대)
2위 : 남 학 현(체과대)
3위 : 김 현 용(경희대)
김 병 옥(풍생고)

▲페더급

- 1위 : 강 창 모(동아대)
2위 : 김 병 철(상무)
3위 : 안 홍 엽(송림고)
이 두 상(광주체고)

▲라이트급

- 1위 : 박 의 성(한체대)
2위 : 윤 정 옥(경희대)
3위 : 이 종 학(현대자동차)
곽 택 용(인천체고)

▲웰터급

- 1위 : 임 영 호(경희대)
2위 : 하 태 경(한체대)
3위 : 진 정 우(상무)
김 광 수(한체대)

▲미들급

- 1위 : 윤 순 철(상무)
2위 : 박 중 범(한체대)
3위 : 박 은 석(전남협회)
김 정 규(선인고)

▲헤비급

- 1위 : 김 재 경(상무)
2위 : 김 현 일(지하철공사)
3위 : 이 재 영(성균관대)
김 봉 근(경희대)

(여자부)

▲핀급

- 1위 : 이 순 영(교양종교)

- 2위 : 김 진 성(송곡고)
3위 : 유 수 진(경희대)
유 수 미(리라공고)

▲플라이급

- 1위 : 모 선 영(인덕공고)
2위 : 김 민 정(체과대)
3위 : 서 미 라(인천체고)
김 지 향(광명상고)

▲밴텀급

- 1위 : 원 선 진(효원고)
2위 : 황 은 숙(상명여대)
3위 : 양 은 정(성신여대)
진 용 순(광명상고)

▲페더급

- 1위 : 김 성 숙(성신여대)
2위 : 이 현 화(경희대)
3위 : 윤 희(한체대)
박 정 미(상명여대)

▲라이트급

- 1위 : 정 은 옥(상명여대)
2위 : 김 경 애(체과대)
3위 : 윤 명 숙(인천체고)
진 해 윤(경희대)

▲웰터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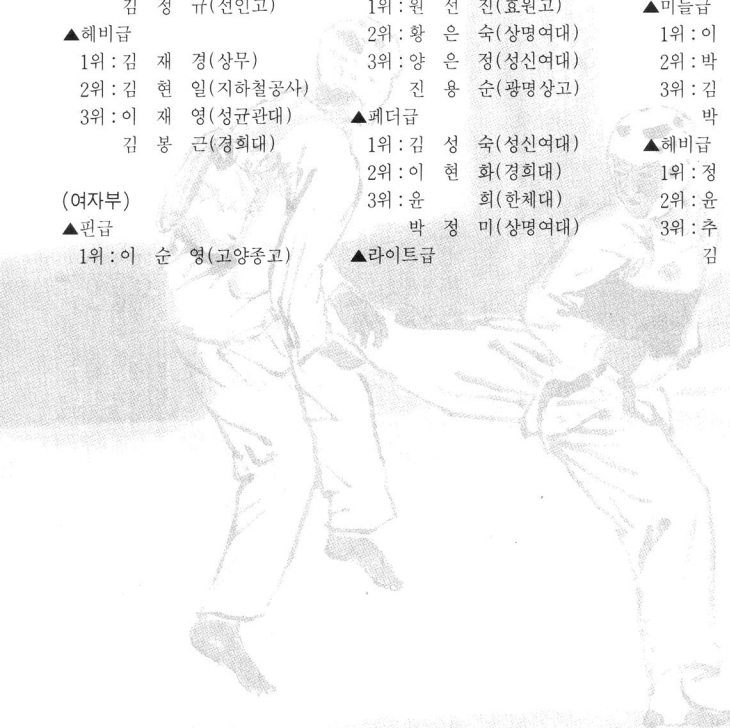
- 1위 : 고 재 경(경기도협회)
2위 : 김 미 영(체과대)
3위 : 백 정 자(동명전문대)
박 선 미(상명여대)

▲미들급

- 1위 : 이 선 희(체과대)
2위 : 박 상 희(리라공고)
3위 : 김 은 주(인천체고)
박 해 영(경희대)

▲헤비급

- 1위 : 정 명 숙(혜성여고)
2위 : 윤 현 정(문성여상)
3위 : 추 수 연(은광여고)
김 태 희(문성여상)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회장 국방부장관취임 한봉수 전부회장도 상공부장관에

KTA President, Mr. Choi Sae Chang was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지난 12월 19일 새로 임명된 7개부처장관중 최세창협회장을 비롯해 태권도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각했다. 최세창회장은 5단의 태권도인으로 지난 '91년 1월부터 대한태권도협회장직을 맡아왔는데 이번 개각에서 국방부장관에 취임하게되어 경기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장관을 협회장으로 모시는 경사를 맞았다. 또한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대한태권도협회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한봉수씨가 상공부장관으로 취임했다. 체육청소년부 이진삼 신임장관도 태권도 7단의 고단자.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 임명장을 받는 최세창회장.('91.12.20)



국기원 '태권도기념관' 개관

Kukkiwon 'Taekwondo Museum' Open.

국기원은 창립 19주년을 맞아 태권도기념관을 개관했다.('91.10.30)

태권도기념관에는 각종 태권도관련 물품 및 자료 1천2백여점이 전시되어 태권도의 역사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기원의 김운용원장(우측세번째)은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회장(우측두번째)과 김종렬대한체육회장(우측네번째) 등 관계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관 개관식 테이프를 끊었다.



▲ 전시관을 안내하고 있는 김운용원장.



▲ 각종 대회 메달, 기념패, 페넌트 등이 전시된 전시관.

제10회 남자 및 제3회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0th Men's World Championships and
3rd Women's World Championships of Taekwondo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0회 남자 및 제3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선수단은 남녀
종합우승으로 남자 10연패, 여자 3연패의 위업
을 달성했다.

▶ 최세창회장이 대표팀 결단식에서 이진수단장
(전북협회회장)에게 대회기를 수여하고 있다.
('91.10.23.올림픽회관 중회의실)



▲ 한국대표선수단



▲라이트급에 출전한 알대승선수(조선훈주)는 8회와 9회 세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우승, 대회 3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92국가대표선발대회

The Selectional Tournament for Korean National Player 1992

'92년도 국제대회를 대비한 국가대표선발전이 지난 12월9일부터 12일(1차), 26일부터 28일(최종)까지 개최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체급별 1위자는 한달간의 합숙훈련후 92년 1월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0회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 88금메달리스트인 권태호(경희대)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 남자부 체급별 1위자.



▶중학생때 89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주목받았던 원선진 (효원고)이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대학생 언니들을 제치며 국가대표로 김배.



▶표작부
배급별 1위자



제7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The 72nd National Sports Festival Taekwondo Competition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주고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경기는 전북선수단이 10연패의 서울을 제치고 우승, 11년만에 종합우승이 지방팀으로 돌아가는 이변을 낳았다.



▲ 종합우승은 전북, 2위 서울, 3위 광주



'91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This year's Best Player Tournament.

'91년도 남녀 각체급 최고의 선수를 뽑는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6일부터 8일까지 국가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각 체급 1,2위자는 '92년도 대표최종선발전의 출전권이 주어져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노소동락, 인천세교 윤치영 감독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은 전국가대표 이현석과 치열한 접전 끝에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박종범선수(한체대)에게, 여자부에서는 박혜영선수(경희대)가 수상했다.

제17회 국민학교연맹회장기 전국국민학교대회

The 17th National Primary school
Taekwondo tournament

태권도 꿈나무들의 축제인 국민학교연맹회장기
대회가 12월12일과 13일 국가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태권도의 명문 충북서원국교와
서울은천국교가 남녀부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남녀최우수선수상을 차지한 김정훈(충북서원국교),
최윤희(서울은천국교)

